

개인의 죽음 아닌 사회정의의 죽음

잘못된 교육정책에 희생된 진철원·권희정 열사

노수석 군에 이어 이번달에도 진철원, 권희정 두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이들은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정책 확보를 외쳤지만 아직도 공개기관의 답변은 없다. 앞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4·19혁명 36주년을 오는 19일(금)에 '32인 학생열사 위령제 및 문민독재 종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일(토) 오후 9시 30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원대학교 총여학생회 사무실에서 고 진철원(도시계화학교 2) 군이 분신 사한 채 발견됐다.

발견지에 의하면 "사무실에 연기가 난다는 교수의 신고를 받고 올라가 청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보니 고 진철원 군의 시신이 불에 타 오그라든 채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총여학생회 사무실은 안으로 문이 잠겨 있었고, 고 진철원 군의 시신 이외의 것은 불에 타지 않았다.

고 진철원 군은 경원대 입학 민족사연구회 '한민'에서 활동해 왔다. 분신하기 전 동여대 공동 낙서장에 "후배들 열심외 살기를 바란다.", "김영삼 XX" 등의 내용을 남겨뒀다. 고 진철원 군은 그동안 고 장원구 씨 등에게 노수석 군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고 한다.

진철원 군이 사망한지 하루만에 또 다시 연방이 사망했다.

지난 7일(일) 밤 11시 40분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 권희정(국민유리화



지난 4월 10일(수) 고(故) 노수석군 장례식이 연세대에서 열렸다. 장례식 후 대학원은 서울 중심가에서 노제를 열었고, 시신은 오후 4시쯤 광주로 출발했다.

고 9년(졸) 양이 등록금 13.1% 인상 저지와 예산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단식 후 유증으로 사망했다.

권희정 양은 지난달 25일(부) 10일간 단식을 했으며 지난 4일(일) 단식을 끝냈으나 단식 도중에도 가슴의 통증을 호소했고 급기야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확실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언론에서 '비리사에 의한 심근경색증'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고 권희정 열사 추모와 부당한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성신비(상대역위원회(비대위) 노조연(법학) 4) 위원장은 "단식을 받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한 대학당국은

회장이 언기아 죽은 무죄도 아무런 공식입장도, 조문도 없었다"고 "장례식을 연기하려고 했으나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 9일(일) 소규모 노제에 장례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대위는 △등록금 납부 유보에서 총학생회로의 민주부담 △간교사 거부 △

대규모 단식농성단 결성 등 계속적인 투쟁과 연대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16일(화)에는 고 권희정 열사관련 서울권 집회가 성신여대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노수석 군의 장례식이 지난 10일(수) 서울과 광주에서 치러졌다.

장례식은 오전 10시경 광역행렬이 연세대를 출발, 신촌로터리 노제, 시청 추모집회에 이어 오후 2시경 종로노제에 진행됐다. 종로노제는 2천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가해 친연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등의 조사와 추모곡으로 진행됐고 오후 3시 30분경 노제가 끝나고 유가족과 학생, 시민을 태운 버스가 광주로 떠났다. 이후 노제를 마친 대학생들은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종로3가-명동-남대문-서울역에서 평화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탄을 난사하며 폭력진압을 했다. 또한 집회가 끝난후 밤 8시경 본교와 경희대 학생 200여명은 회기역에서 '총선에서 김영삼정권을 심판하자'며 선전전을 펼쳤다.

한편 장례행렬은 광주에 도착한 후 밤 10시경 도청 앞에서 노제를 치루고 광명동 5·18묘역에서 하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한총련 장명기 의장은 "법안화도가 하나되어 새로운 학생열사가 의전 살인·폭력정권 김영삼정권 타도를 행동으로 실천하자"며 결사적인 행동을 다짐했다.

백병수 기자



신발끈을 졸라매자

▲"아니, 이럴 수가", "어, 이상한데"

지난 12일(금) 새벽까지 진행된 제 15대 총선의 개표결과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상과 달랐던 이번결과를 발견하고 놀랐을 것이다. 중진연예들의 대거 낙선, 김대중씨의 원내진출 불가 등 여러가지로 놀랐지만 무엇보다도 역대 유례없는 사실은 수도권에서의 신한국당의 약진이었다. 정치의 중심지, 번지로 불려왔고 그이름에 걸맞게 언제나 정권을 심판해왔던 서울, 경기도에서 신한국당이 대거 당선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특히 지난 10일 종로구를 활달히 투쟁해왔던 대학생들은 누구보다도 그 실망이 더했으리라고 본다.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을 만났던 그들에게 이렇듯 후배의 당선은 거짓 패배와 좌절감까지 안겨줄 수도 있다.

▲총선거결과가 끝난 그날 만난 한 선배는 "무엇부터 신발끈을 졸라매자"고 말했다. 이제부터 신한국당의독단적인 정국주도가 시작될 것이니 그렇다며 지금부터가 더 큰 탄압과 맞서야 할 싸움일 것이라는 게 그 선배의 이유였다.

▲많은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실패'했다고 얘기한다. 개표를 보며, 탄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지나간 일일 뿐이다. 과거는, 고통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오늘에 서서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총선에서 우리는 민주진영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시기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대선자금 공개 투쟁을 좀더, 현재까지 전개하면서 이번이 동향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총선은 끝났지만 끝까지 앞을 보는 것은 너무 많다. 아직 대선자금 공개되지 않았다. 5월의 학생자들도 완전히 차치되지 않았다. 결과에 저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청년학생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다. 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야당을 결집시켜야 한다. 지금부터 더 큰 싸움이 시작된다. 신발끈을 졸라매고 달려나가지, 끝까지 앞을 보지 말라기 위해서.

고병권

지면안내

학교법인, 시립학교법외법 3면
제15대 총선 1791억이 등록금으로 총량되고 있다.

시리즈.....4면
남북 평화 협정체제 가능한가?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남북한의 전쟁 과연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행의통산.....5면
예 러시아의 체첸 사태에는 바람 잘 날 없을까?

신입생들의 동여리 선호? 6면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내용을 갖지 못하는 동여리는 이제 소외당한다.

등록금 구 뿌리를 잃자
⑥학비감면비10면
정학금 57억... 그 실체는?



4.11총선, 신한국 승리 정국 주도할 전망

야권분열·북풍·젊은층 투표율 저조가 야당 패인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지난 4월 11일(목) 치러졌다. 이번 총선은 양으로 2000년대까지 국정을 운영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 만큼 그 의미가 한층 컸었다. 그러나 개표결과 그 의미가 한층 컸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변은 무의보 다도 신한국당의 대거 당선이었다. 신한국당은 34.5%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지역구 121석과 전국구 16석으로 여당으로서의 정

국주도권을 다시한번 잡게됐다. 또한 초중반에 선전하고 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예상과는 달리 수도권에서 참패하게 됐고 김대중총통의 정대형, 이종찬 후보 등 중진후보들이 낙선하게 되어 앞으로 대권구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역시 원래 목표인 10석이 제안되는 지역구 9석을 얻었으나 서울지역에서 이철, 노무현 후보 등 기대했던 후보들이 낙선했다. 이에 반해 자유민주연합은 41석의 지

역구를 당파의 확보하면서 김종필 총재의 원내진출까지 성공해 캐스팅보드를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내각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명의 독자후보를 출사시켰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야권의 분열로 인해 표가 갈라진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민족민주운동정당이 야권을 단결시킬만큼

역구를 확보하면서 김종필 총재의 원내진출까지 성공해 캐스팅보드를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내각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명의 독자후보를 출사시켰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야권의 분열로 인해 표가 갈라진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민족민주운동정당이 야권을 단결시킬만큼

역구를 확보하면서 김종필 총재의 원내진출까지 성공해 캐스팅보드를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내각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한국당 낙선운동을 벌여왔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역시 노수석 군의 죽음과 관련, 힘차게 투쟁을 벌이긴 했으나 그 성과를 총선과 연결시키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으며, 또 야권의 분열로 인해 학생들이 겪었을 혼란스러움을 지도부가 명확히 정리해주지 못한 점도 평가했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인해 신한국당은 자신감을 갖고 정국을 주도해나갈 전망이

다. 이로 인해 민권이나 경제 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권은 정영에 대한 탄압도 대선전까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총련 외장 장명기(전 남대 총학생회장)군은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정책 확보 투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일어난 내각제 등에 대해 사활을 걸고 저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권민기서 9면)

허운숙 기자

“어머니, 저 모내기 도우러 곧 내려가요”

"어머니, 저 성운이예요. 먼저 바람이 심한데 건강은 어떠신지 걱정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새까, 활짝 핀 개나리를 보니 고향 생각이 절절합니다. 이제 잘 바깥 시가지요? 푸릇푸릇 들은 새순들을 보면서 모내기도 해야하고 이것저것 한해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니까요. 늘 장남 노릇 할 번 제대로 못하고 힘든 농사도 번 피같은 돈으로 공부하는데, 성적도 그리 신통치 않고, 근심만 끼쳐드립니까. 하지만 어머니님 생각하며 늘 건강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곧 중간고사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받고 집안일 거 들어야죠. 시험 끝나는데로 5월 첫주 쯤에 힘 좋은 친구 몇 명 데리고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곧 뵈게요."



민족자주론
외대학보

우리의 고향, 우리의 젖줄, 우리의 농촌이 부산한 한 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일년 한해 안 바뀔 날 없는

농촌의 일년, 기계화도 뭐다 하지
만 아직도 건강한 일손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게 우리 농촌의 현실
입니다. 떠나버린 젊은 일손들,
우리의 고향에 우리의 힘찬 두손
을 돌려드립니다. 여기, 당신을
부르는 고향이 있습니다. 5월초
전라북도 순창에서 진행되는 농
촌철동에 힘있게 참가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고향
으로 갑시다.

사 설

총선을 넘어서서

총선은 끝났다. 하지만 고 노수석군 죽음의 징상과 영안은 두 학생의 죽음으로 대학에 걸림쇠가 계속되고 있다. 최후연기 안시키고 정권과 심한 뜰수록 학생 여력이 다쳐가고 있다. 그러나 한 쪽에서 최후연기 속에서 대신자금 공개 요구를 외치며, 타진 최후연기의 때를 넘세와 막히는 교풍으로 대학생을 싸잡아 비난하는 다른 한 쪽도 있다.

모든 국민이 한 방향에 공감하고 한 목소리에 한 행동을 하려면 어려울 일이다. 하지만 보다 좋은 것은 존재하고 대다수가 이를 지향하며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며 이 대열의 앞에서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학생이 아닐까. 하지만 요즘의 세대는 눈앞의 재 및 속과 편리에 취해 나아가지 못하고 정제와 보복하는 모습으로 가득하다. 더욱이 시대의 양심 역할을 해 온 대학생들마저 이 세대에 정권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걱정되는 노릇이다.

총선에 맞춰 나온 부활의 징세변화를 냉정하게 분석하기 이전에 한 민족임을 잊고 지나친 흥분과 매도의 소리가 높아지고 열사의 죽음의 의미를 느끼고 전에 무의미한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자. 대학은 가능성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다. 시대의 지성을 키워 내고자 하는 곳이며 행위의 논리를 세우는 곳이다. 젊은이로서 모순된 현실을 직시하고 용이하는 것은 권리가 의무이다.

하지만 나쁜 일사예만 광범히 파문되고 모순을 바꾸기보다는 인종과 계층에 안주해가는 학생들의 보수화현상은 참담하며 지루하기가 아닐까. 이번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는 일이 많은 의식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학의 모순을 바꾸고 주당하는 집회들, 당장 시교를 호소해 내 공부에 방해받고 눈살 찌푸리는 많은 대학생들, 시대의 지성이란 깨어있어야 하고 있지 나아가야 한다.

이제 세상으로 가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청년의 넓은 가슴으로 현실을 보고 진보를 위한 길을 몸으로 보여주는 실천이 아닐까. 이것이 총선을 넘어서는 길이라 생각한다.

총장 직선제 폐지 발언 신중해야

동북극 투쟁으로 4월을 맞이한 대학가 일부 대학의 총장직선제 폐지 발표도 또 한번의 진통을 겪을 조짐이다.

지난 4월 초 울산대, 계명대를 비롯한 지방소재 8개 사립대학은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를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가 학교발전의 기여할 적임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총장직선제위원회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라며 사설상의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의했다.

이들 대학은 총장직선제가 대학민주화를 이룩하며 시행되고 있으나 교수파벌주의를 조장하고 '대학사회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대학발전의 위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소위 '8개 대학 연합'이라 불리는 이들 지방사립대학은 교육시장경쟁을 앞두고 교수파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

87년 6월경 대학 수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을 딛고 많은 권력자들의 민주와 열망 가운데 태어난 총장직선제는 재단의 간섭으로부터 사학을 지켜내고 밀실행정을 대변하던 대학행정을 바꿀 세상에 드러내는 등의 많은 공적을 거두고 출범했다. 8개 지방사립대학 총장이 발표했듯이 일 부 대학에서 총장직선제 이후 교수간의 파벌, 총장직선제의 정치선거화 등 그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들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정치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수많은 대학인들의 고뇌와 열망으로 일궈낸 총장직선제를 그 한 측면만을 바라보고 전면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대학발전의 위해 옳은 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태를 무너트려서 강 뜻만그라'는 옛 속담처럼 우리도 시대를 거스르는 발언에 현실에서 말고 화제의 비민주적 요소의 극복과 진정한 민주화의 구현을 위해 절염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출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에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누십시오.
원고 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영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산용 용지에 원고를 발송합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수언론 자성하라

지난 7일은 독립신문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신문의 날이었다.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주도적인 민중지이고 국·영·문·판으로 쓰여져 지파고, 남녀노소 차별없이 읽혔다. 또 예극계몽운동의 일로 민족의 개화에 힘썼으며 개화기 일본의 수탈 등에 대한 자주독립을 그 목표로 삼았었다. 물론 부르주아적 계몽운동이었고 황제의 존재를 인정할 불경적인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불변부담의 정면자였음이 분명하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의 언론은 어떠한가? 한 마디로 아직 도 못했다. 80년대 강경적인 군벌에 의해 바른 소리 한 마디 못하고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까지 표현하던 언론사들이 이지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

되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정반대의 글을 쓰고 있다. 5·18학살의 정경으로 권력의 비호에서 멀어지지 두 전직 대령을 호되 꾸짖고 있다.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대령들이 대대서는 공경이 조용하다. 죽은 동물이나 핏기는 사지않아도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지구의 연인이다. 고 노수석군의 죽음에 대해 진중하는 공산주의 주창자에 의해서 투쟁의 무기로 변화될 것 같아 불안하다는 사실과 교풍정세를 유발한 거시위행 부각시켜 그 뒤로 가려져버린 동북극투쟁의 의미 등 이구간 하고 앞서 가는 언론이 지금까지의 우리 모습이다.

이런 신문의 날은 뉴미디어 신문과 활자신문의 판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렇다. 이런 신문의 정미화현상은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투쟁성과 공경성의 확보가 더 시급하다.

조현철(서양·영어 4)

도서관 공간문제 대안 마련 시급하다

오는 22일 (월)부터 28일 (일)까지는 아몽의 중간 고사 기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아몽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도서관에 자리 갱장비 다로 그 것이다.

서울캠퍼스 전생이 7,000명, 하지만 도서관 좌석수는 2,500석이 채 못된다. 대군다나 같이 서울은 인문캠퍼스 학생들도 서울캠퍼스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좁은 좌석수를 몇 명의 사람이 사용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렇게 환탄만 하고 있을 수만

은 없는 일.
일단 이론들의 협소한 공간 속에 또 다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다면 건물을 새로 짓는 기존의 건물들을 이용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경우 현실적인 방안은 사범대 건물에 있는 몇 개 강의실을 시험 기간만이라도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책 강의실의 좌석수는 각 강의실 당 평균 60석 정도이다. 20여 개의 실 정도가 있다고 계산해도 1,000석 이상의 새로운 도서관이 생길만 말만 된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강의실이 있는 여러 개의 용출들의 편의 우려한다는 이유로 강의 시간의 외 강 강의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 좌석 부족으로 인해 당장 며칠 후부터 겪게 될 학생들의 불편을 전공으로 과장한다면 그런 사소한 문제는 강의 이외의 근무 시간을 시험 기간 동안만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어렵다면 인근의 바이트생이든 구해본다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

민약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려면 의지가 없다면 대외의 정책이 관련 정당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행정이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시급하다.

김영주(법학 2)

아직은 요원한 정보화 외대

비야르로 정보화 시대다. 이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본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산망(LAN) 설치, 도서관 전산화, 전산상업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 두 대 설치(서울대는 인터넷 가능 전산실만 시 나가다 등. 하지만 아직 구석구석 미흡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본교 도서관에 컴퓨터 관련 서적이 많은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 관련 서적들은 대부분 플로피 디스크나 씨디롬들을 부록으로 하여 출간된다. 이에 씨디롬으로 출간되는 서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 본교 도서관에는 책만을 빌릴 수 있을 뿐 씨디롬이 필요한 부록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대학 당국은 위와같은 매체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씨디롬이나 플로피 디스크 등의 내용을 책처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당국은 전산실 설치와 학교 내 행정 기구에도 한층 선진화하는데, 대학 당국은 전산망을 학생의 등 학생

누구든 때려 죽이고 심장마비라 하자

- 백골단 -

살아남은 자의 슬픔.
- 94 산 -

살은 투쟁이다. 나는 스토리 파워가 뛰어나게 걸었다.
- 대양 -

그대들의 죽음을 계기로 03이 모

어떤 것을 공개사하고 교육재정을 확보하면 출판된다. - 7 -

주제: 잇따른 학우들의 죽음 보고 한마디...
저자: 누구나 한탄은 위아래가 있는 법. 위아래부터 차례로. - 사자 -
죽음?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 담심교주 -

□ 교수투고 - 외대학보를 읽고 '권리' 향한 당당한 주장 환영

2주전 외대학보에 실린 조종호 학생의 '본분과 주체'의 글을 읽고 크게 우리 실용영어 개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책이 변화된 외국어에 영어개화에 참여해주시는 시명도의 차이에 대해 5명의 강사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 실용영어부장으로 감사한다.

실용영어 개정이 평가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고 평가와 비판에 개방적일 때 우리는 정평을 토대로 개선을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도 시간이 30분이 넘는 것 외의 지적인 월·수·금으로 해야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수업반에 대해 나 는 조종호 학생과 동갑이다. 테이프와 비디오를 접해서 듣고는 사람만이 수업을 의미로 느낄 수 있는 수업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교재의 나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빠르다.

강사들에게 관련된 가까운 발음은 대대치는 없지만 강사들이 안전한 발음을 하지 못하더라도 안전한 발음을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테이프와 비디오의 도움이 우리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김재민(영어과 교수, 실용영어부장)

독자시간

시대고민
송혜원(사범·한국과1)

한화그룹

21세기의 '프론티어'에게 ...

미지의 세계를 무한 가능성의 세계로 개척할 수 있는 웅기와 모험정신을 간직한 젊은 담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대졸신입사원 모집요강

미래창조·세계도전
아양과 패기의 젊은 우주를 찾습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2. 전형방법
3. 응시자격
4. 채용절차
5. 모집대상
6. 기타

계열 회사별 모집분야

모집분야	모집 회사	모집 분야	인원	신청서류
회 계	(주)한화건설	인원	10	729-1573
	(주)한화물류	인원	10	729-3604
인 사	(주)한화건설	인원	10	3440-2740
	(주)한화물류	인원	10	729-1573
공 사	(주)한화건설	인원	10	729-1573
	(주)한화물류	인원	10	729-1573
회 계	(주)한화건설	인원	10	729-1573
	(주)한화물류	인원	10	729-1573
회 계	(주)한화건설	인원	10	729-1573
	(주)한화물류	인원	10	729-1573
회 계	(주)한화건설	인원	10	729-1573
	(주)한화물류	인원	10	729-1573
회 계	(주)한화건설	인원	10	729-1573
	(주)한화물류	인원	10	729-1573

www.hanwha.co.kr

□ 4월 14일로 임기 종반을 맞은 안병만 총장을 만나

“외대발전 5개년계획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최초의 직선제로 선출된 안병만 총장이 지난 14일(일)로 임기 종반기를 맞았다. 지난 2년간의 활동들이 돋보이고 남은 기간동안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안병만 총장을 만나 보았다.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일들은
-지난 2년은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고, 싹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외대 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다. 먼저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교수들을 채용했으며, 그에 따라 복수전공, 전과제도, 편입제도, 계절·학부전공 등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개편했다. 또한 통역대학원, 외국학술협력센터 등의 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위생안전센터, LAN시설 등의 기자재를 확충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캠퍼스 농을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좋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많은 일을 시도하다 보니

동시다발적이고, 두서없이 진행될 점들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외대만의 특색 발전 방안은
-특색있는 대학들은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 각과마다 독자적인 분야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난 9년간 취임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학교는 지역과 지역과의 메카로 일어서야 한다. 건립 중에 있는 통역대학원은 어문학발전이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어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총체적 결합으로만이 가능한 지역과 역사 현재 건설 중인 외국학술협력센터 등을 통해 세계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총장이면 어떤 사람이야 하고 현

재 제기되고 있는 총장 직제에 대한 생각은
-총장은 한 대학의 중심이며, 그만큼 중요하며 할 책임이 막중하다. 먼저 총장은 사적인 관심을 배제하고 학교 발전에 몰입해야 한다. 또한 학교발전이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 모두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제다. 그리고 총장 직제 폐지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다. 간선제, 직선제, 정부나 재단의 위임 등 여러 유형들 모두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좋다·나쁘다를 단언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른 탄력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학생들의 예산소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학교의 예산소위위원회와 상호 의견을 논의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외대인에게 바라고 싶은 말은
-항상 외대인은 성숙하고 앞서 있다.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생 개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학교 이념에 어울려 생각하고 학교는 근본적으로 지식의 상실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
박승원기자



본교 용인캠퍼스 상징탑의 밑동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형색이 상징탑인데... 이사 빨리 보수해야하지 않을까 경유기 기자

전입금문제, 사립학교법 충실히 이행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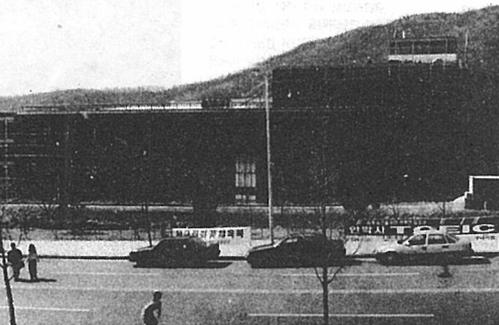
건설가계정에 법인재단 전입금 총당안된 것으로 드러나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등록금정책과 관련하여 발송한 대학당국의 답신서가 지난 3일(수) 4일(목)에 학생회측에 전달된 가운데 일각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져 이에 대한 협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중에서도 양캠퍼스 학생회가 공동으로 제기한 건설가계정항목에 요구인의 대한 담보이 협상의 논란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학당국은 사립학교법 제5조 사립학교에 대한 사실상의 확보에 대한 선진적 조항인 법인재단의 주체를 법인재단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가계정의 지출액과 자산전입금이 일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으나 이에 대해 양측이 부합한 데서 기인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학생회측 반박해왔다.

또한 대학당국은 금년도에 책정된 건설가계정 140억원이 전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이월된 적립금인출과 지장기금으로 조성된 83억원이 충당된다고 단언했다. 덧붙여 대학당국은 우리 나라 사적이 경제적으로 부합할 수 없는 것이 사립 대학 제도의 한 요인이라고 그 실정·경영상의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당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대학당국은 등록금과 관련 기성회 기금과 제2차 18명 3명 2000원 기금부처시설의 분출과 확충 2000원 기금과 대학당국의 답변에 강력히 반박했다.



본교 용인캠퍼스 상징탑의 밑동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형색이 상징탑인데... 이사 빨리 보수해야하지 않을까 경유기 기자

자원의 연구비 지급 2000원 기금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근거로 하여 사립학교의 사실·실비에 대한 자금증명은 전입금·기부금·국고보조금 및 등록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용인캠퍼스 학원자회추진위원회 위원장 모성훈(인문·사회 4학년)은 "건설가계정 지출에 대한 학생담보금은 의무부담금이 아니라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발전 등을 위해 부담하는 기부금 성격의 발전기금이다"라며 "학생담보금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기금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금 납부추진을 병행해 주어야 한다"라고 대학당국의 답변에 강력히 반박했다.

관련 운영예산과 조정을 위해 남김하게 될 법인재단 전입금 199억원이 건설가계정 전입금에 직접입금 현황에 없으며 "하지만 전입금이 57억은 순수한 학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로 책정된 것이다. 이는 확실히 드러나듯이 올해 건설가계정 항목에는 올해 법인재단 전입금이 들어있지 않다. 대학당국이 말하고 있는 건설비용 83억 또한 분식하면 작년도 이월 적립기금 43억은 작년 들어온 32억의 기부금에서 내는 법인재단 전입금으로 충당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올해 남김할 것으로 알려진 법인재단 전입금 199억원과 비사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교법에는 기성회 회원일 임원은 학부부에 한해서 자격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교 기성회회원들은 학부부인 동시에 교수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본래 기성회 설립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은 것이다.

기성회 총회도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음에 임원들의 결의에만 의존해 대학당국은 50만2천원을 기성회비로 등록금 고지서에 인상정책에 집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양캠퍼스 학내에서 현재 건립되고 있는 통역대학원·교수연구동·후생복지관·외국학술협력센터의 총 공사비는 건설가계정에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총액 40%가 지출된다.

교육용 토지 매입 또는 신·중·개축할 교육용 건물을 법인재단의 등록자산으로 만드는 점에서 건설가계정에 쓰이는 비용은 법인재단이 주로 부담하는 것이 담보이겠다.

정명수 기자

외대 현상(像)

5차 단체협상 양측 입장차로 결렬

금년도 단체협상 협정을 위해 제5차 단체협상이 지난 9일(월) 본교 직원노동조합(노조)측과 대학당국측 단체교섭위원 각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조측의 요구안 중에서는 친인척 결혼·출산·사망 시 지급되는 결혼비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체결된 조항이 없었다.

한편 대학당국은 2대협상은 직원이 사생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연가결정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주며 연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연가를 초과하여 2개월 초과하는 후생복지기금을 위해 매년 일원인원의 후생복지기금을 적립한다. 2대협상은 해외유학 대상

자를 연15명으로 한데는 노조측의 요구안에 대해 '9년도에 약정된 연봉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이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노조측의 2차협상시위원회 2인중 2인의 위원을 조합대표자가 추천한다. 2차협상의 법인부담금을 퇴직유료금으로 지급한다. 스승·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2인의 등교비와 학자금을 지급한다. 스승·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2인의 등교비와 학자금을 지급한다. 스승·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2인의 등교비와 학자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노조 조합장 박정열 씨는 "이번 5차 단체협상에 역시 별 성과가 없었다"라며 "6차교섭전에 대학당국 대표와 여러번 접촉하여 의견차를 좁혀 나갈 것이다"라며 "6차교섭실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은진 기자



과목	금액	액
I. 원재료비		354,689,299
1. 원재료	1,594,730	
2. 원재료	356,092,355	
3. 원재료	2,997,786	
II. 노무비		142,175,724
1. 급여	98,563,714	
2. 상여금	6,496,240	
3. 임금	37,115,770	
III. 제조경비		13,898,580
1. 복리후생비	5,455,680	
2. 여비교통비	720,100	
3. 임대비	33,350	
4. 통신비	950	
5. 수도광열비	10,000	
6. 세금과공과금	2,600	
7. 운송비	990,000	
8. 차량유지비	4,600	
9. 교육훈련비	816,600	
10. 도서인쇄비	10,700,000	
11. 소모품비	5,004,600	
12. 지급수수료	415,200	
13. 잡비	16,900	
IV. 제조비용		510,763,603
V. 기초제조비용		0
VI. 제조경비		0
VII. 제조경비		0
VIII. 제조경비		0
IX. 제조경비		0
X. 제조경비		0
XI. 제조경비		0
총계	41,326,767	-11,091,000

과목	제1(당)기 금액	제2(당)기 금액
1. 매출액	1,169,071,250	866,789,105
2. 매출원가	585,441,390	653,125,145
3. 매출이익	583,629,860	213,663,960
4. 판매비용	960,920,712	0
5. 판매이익	0	991,071,982
6. 판매원가	450,157,109	481,057,462
7. 판매이익	12,690,751	27,134,997
8. 판매이익	474,110,826	467,613,185
9. 판매이익	37,644,437	13,900,720
10. 판매이익	0	0
11. 판매이익	510,763,603	210,014,520
12. 판매이익	208,750,518	175,217,123
13. 판매이익	233,570,465	226,390,234
14. 판매이익	103,164,880	144,690,370
15. 판매이익	5,467,880	5,900,000
16. 판매이익	19,320,780	7,883,170
17. 판매이익	19,958,983	2,215,254
18. 판매이익	0	452,750
19. 판매이익	14,350,056	6,132,860
20. 판매이익	250,465	184,240
21. 판매이익	361,000	1,131,630
22. 판매이익	20,011,500	1,217,170
23. 판매이익	293,000	1,630,900
24. 판매이익	363,900	409,580
25. 판매이익	23,073,771	6,961,730
26. 판매이익	3,586,300	3,962,430
27. 판매이익	2,776,720	4,159,300
28. 판매이익	2,212,560	4,037,110
29. 판매이익	11,320,240	2,863,800
30. 판매이익	2,824,250	1,891,330
31. 판매이익	1,323,000	4,360,100
32. 판매이익	3,500	10,570
33. 판매이익	5,574,355	5,670,090
34. 판매이익	5,950,000	4,360,100
35. 판매이익	644,000	0
36. 판매이익	7,450,000	1,800,000
37. 판매이익	4,411,900	952,950
38. 판매이익	687,700	10,060,000
39. 판매이익	0	1,091,150
40. 판매이익	44,819,947	51,193,201
41. 판매이익	94,823,500	63,037,360
42. 판매이익	2,094,380	2,670,542
43. 판매이익	13,521,540	6,256,000
44. 판매이익	0	50,000
45. 판매이익	78,907,610	54,057,818
46. 판매이익	8,376,816	11,855,250
47. 판매이익	8,078,400	5,240,000
48. 판매이익	298,416	6,619,250
49. 판매이익	41,326,767	-11,091,000
50. 판매이익	41,326,767	-11,091,000

과목	제1(당)기 금액	제2(당)기 금액
1. 총자산	585,441,390	653,125,145
2. 총자산	(157,389,057)	(197,957,324)
3. 총자산	(100,844,434)	(81,671,874)
4. 총자산	8,122,747	1,496,310
5. 총자산	12,711,687	80,175,564
6. 총자산	80,000,000	
7. 총자산	(40,642,223)	(115,285,450)
8. 총자산	37,644,437	13,900,720
9. 총자산	2,997,786	1,594,730
10. 총자산	(15,902,400)	(1,000,000)
11. 총자산	15,902,400	1,000,000
12. 총자산	(1,476,000)	(1,200,000)
13. 총자산	(800,000)	(800,000)
14. 총자산	800,000	(400,000)
15. 총자산	(676,000)	400,000
16. 총자산	(54,896,510)	(32,030,935)
17. 총자산	(54,896,510)	(32,030,935)
18. 총자산	33,836,000	20,757,000
19. 총자산	12,413,310	12,413,310
20. 총자산	10,142,092	10,142,092
21. 총자산	61,598,086	40,094,740
22. 총자산	30,125,827	19,335,016
23. 총자산		
24. 총자산	(213,761,567)	(131,188,259)
25. 총자산	(64,426,787)	27,437,919
26. 총자산	63,752,547	
27. 총자산	674,240	3,849,000
28. 총자산		1,022,500
29. 총자산		1,000,000
30. 총자산	(16,876,624)	6,876,624
31. 총자산	23,051,027	19,838,627
32. 총자산	3,212,400	
33. 총자산	(84,265,414)	(44,686,133)
34. 총자산		
35. 총자산	(11,572,260)	(9,905,000)
36. 총자산	11,572,260	9,905,000
37. 총자산	(47,350,190)	(47,350,190)
38. 총자산	47,350,190	47,350,190
39. 총자산	(70,573,703)	(29,246,936)
40. 총자산		
41. 총자산	29,246,936	29,246,936
42. 총자산	41,326,767	-11,091,000
43. 총자산	112,094,153	(86,262,192)
44. 총자산	(213,761,567)	(131,188,259)

공고

제2차 생활협동조합 정기 대의원 총회

생활협동조합 정관 제23조(총회의 소집과 통지)에 의거 제2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오니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1996년 4월 30일(화) 15:00
2. 장소: 공대 101호
3. 참석대의원: 교수대의원 14명, 직원대의원 14명, 학생대의원 14명, 조합직원대의원 2명(총 44명)

1. 1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

2. 2호 의안 95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

3. 3호 의안 이익금의 처리 승인(배당금액확정)

4. 4호 의안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5. 5호 의안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6. 6호 의안 대학교와의 위임운영 약정서 승인

7. 7호 의안 조합원들의 선출 및 승인

1996년 4월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양 승 윤

동아리 새내기 모집 현황 및 실태 조사

자기만의 전문성 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학술 1분과, 학술 2분과간의 차이 심해



각 동아리들은 신입생들에게 좀 더 새롭게 다가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학습의 계획성이 요구된다. 사진은 지난달 새내기 모집을 위한 율동 공연 모습.

“동창인들은 물론에 그게 어찌 엑스트라들만 있는지, 한번 본 얼굴들을 도무지 다시 볼 수 없으니... 얼굴을 보았어 한 번씩 밖에 못보니 기억 할 수가 없다”
요즘 일부 동아리들이 처한 현실이다. 새내기

모집을 위해 새벽부터 나와 여가 자기 먹을 물러 가는지, 한번 본 얼굴들을 도무지 다시 볼 수 없으니... 얼굴을 보았어 한 번씩 밖에 못보니 기억 할 수가 없다”
요즘 일부 동아리들이 처한 현실이다. 새내기

니다. 대부분의 동아리들은 나름대로 1년을 내내 데 지장을 겪고(?)의 새기기를 확보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미담 사태가 요즘 비인기 동아리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되 버렸다.
실제로 올인 캠퍼스의 경우 학술 1분과와 학술 2분과는 새기 2명씩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술 2분과 중 활동(원투 동아리)은 지원자 200명에 있어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2-30명에 이르는데 반해 학술 1분과 중 알선(원투)은 지원자 수가 아무도 없어 선배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알선(원투) 회장 박영철(자연·미술)은 “학술 2분과의 경우 신입생들의 대부분이 학기 말 정도에 들어오며, 학술 1분과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명이 되는 동아리에 갔다가 아니라 싶은 학생들만 유능한 우리 동아리를 찾는 거로”라며 학술 1분과의 새기 모집 상황이 수월치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반면 순발(원투)은 ‘거리 홍보팀’을 통해 새기들에게 간단한 수화를 가르쳐줌으로써 친숙하게 다가갔고 또 지난 8월(월) 9일(화)에는 학생회관 전시장에서 ‘재활기’를 위한 이를 직접 열

어 새기들의 관심을 더욱 부추겼다. 또한 이들은 격주로 상반에 있는 ‘순발(원투)’에 자원활동을 가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새기들에게 확실한 자기일을 만들어 주고 있다. 순발(원투) 뿐만 아니라 독도문제연구회도 처음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새기들의 지원도 미비했으나 이제는 독도문제 시화대회와 독도문제연구회의 정기적인 활동들이 내내로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한 자원하는 새기들도 늘게 됐다.

한편 서우회는 지원한 학생 중 꽤 많은 새기들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우회장이 찾아 가며 밥과 떡이 준비되어 있어 부담없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활동에 대해 자유로운 평가가 오고 가며 일상에 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기들이 모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리들은 새기들의 지원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과 학습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의적인 내용을 고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이나 지역거리 등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애쓰고 있다.

윤승노 기자

생활 시평

지난 백년 자성하자

지난 7월(월)은 독립신문 창간 백일을 맞이하는 동시에 ‘신문의 날’이었다. 100년 동학혁명의 반발과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된 소위 갑오개혁이라 일컬어지는 일련의 개혁을 그리고 청일전쟁의 개전, 을사늑약 그리고 본격화되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 등 당시의 급변하는 상황은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다.

먼저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가 거의 확정된 1894년 말부터 일본 의무상의 자금을 자기 신문이 일제 시대 얼마나 단입을 받아왔고 이에 대처해 왔는지를 자랑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같이 언론일을 했는데 MBC가 파업을 했는데도 또 한 학생이 시위도중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는데도 관련 기사는 커녕 진상규명을 외치는 취재에 대해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는 제목만 늘어놓는 언론의 위하는 오히려 ‘학생운동’의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런 4.11총선 결과는 다시 한 번 언론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매일 아침에 대한 자유와 북한의 남북 도발 등을 탐사기로 보도하는 등 시사대중 날은 물론로 국민들의 정서를 흐려놓고 있으니 말이다.

언론체는 올해 신문사의 날 표어를 ‘지난 백년 자성하자, 오는 백년 준비하자’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지난 백년 자성하자, 오는 백년 예전처럼만 하자’로 바꾸는 게 지금 언론의 행동에 맞지 않을까.

한재민 기자

시험기간 도서관을 돌아본다

도서관문제... 언제까지나



본교 도서관. 율동부터 시작된 전산화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공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도서관 3층, 갑자기 난한 쌍이 쓰러지기를 튀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은 어딘곳까지도 그들을 향해 쏠려갔다. 그들은 잠시 쓰러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고 있는 표정을 보였다. 바로 시험 기간을 위해 복사에 놓은 종이이다.
시험기간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평소에는 아저씨가 책상위 신문을 치우거나 복사한 종이까지 같이 버린 것이다. 아저씨 시험기간 중 도서관은 평소와는 보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도 일어난다.

수업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친구도 이 기간에 도서관에 가면 만날 수 있다. 평소와 달리 한눈에 지내려 없었던 친구를 만나도 유난히 반가운 기운. 시험기간 도서관은 바로 사람들의 만남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때문에 시험기간만 되면 도서관은 웬만큼의 정성으로는 자리를 꾸리기 힘들 때가 된다.
학생들의 주요 학습장소인 도서관의 시설, 행정 문제점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험기간의 도서관이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 책상과 책상사이의 간격, 책상들이 책상들 주위로 시설이 밀려서 학생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바깥쪽(상징·무역)은 ‘화장실과 열람실 사이에 있는 유리이 거의 재구성을 못한 다’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도서관 몇 개씩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이다’라고 말한다.
또 시험기간이면 열려 있는 좌석부족

도 문제이다. 서울은 2249석, 용인은 1264석을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게 되지만 시험기간의 경우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특히 서울 캠퍼스의 경우 서울 소재의 용인 학생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시험기간 동안 자리가 더욱 부족해진다. 때문에 친구에게 자리를 부탁해 놓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다.

용인 도서관지원위원회 기함순(원투·무역)은 “조용한 구석자리를 잇따라 사석으로 만들어버리는 학생들이 있다”며 “도서관 면적과 좌석의 조성을 위해서 도서관 자리를 많이주는 경우나 사석을 취할 경우 강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 시험기간에 한해서 도서관은 24시간 개방 하는데 서울의 경우 3층만을 개방한다. 그러나 좁은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이 복잡 거러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책을 읽던 도서관 공기가 눈에 띄게 혼탁해져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도서관 연합회 열람과장은 학생이 3층이 비좁거나 공기가 안 좋다는 건의를 들어오면 더 넓은 4층을 개방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 도서관 선충서 열람과장은 “용인의 경우 자료실이 1, 2, 3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료실에서 책을 아무렇게나 두고 나가면 정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학생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시험기간에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의 속은 도서관이다. 이런 생활의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지 않도록 생활 하거나 또 도서관 관계자들은 행정적 편의보다는 학생들이 먼저 고려해주는 마음을 갖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김갑근 기자



음식문화(6) — 러시아

여유와 넉넉한 인심이 남아있는 음식

세월마다 민족의 풍속과 인성이 변해가 미련이다. 정치적 격변 이후, 풀잎도 밀려오는 자본주의 문화의 물결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는 오늘날의 러시아에서 그 변화의 정도는 특히 심한 것 같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인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무엇이다. 오히려 우리와는 달리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고기 요리 가운데 특이한 편미로는 남반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유입된 양고기 꼬치 구이가 있다. 쇠고기 갈레트와 마시는 대포와 음료는 과거에는 차와 전통 발효음료인 크라스가 주종을 이뤘으나, 최근 들어 크라스는 서구식 청량음료에 밀려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부러 고기나 생선을 꼭 싫은 곡물만 만든 샐러드에 이르러까지 아주 다양한데, 이때 수프에 들어가는 단골 양파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타니로 불리는 시원한 맛이 나는 농축 닭고기다. 닭고기 등 가운데 러시아인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무엇이다. 오히려 우리와는 달리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고기 요리 가운데 특이한 편미로는 남반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유입된 양고기 꼬치 구이가 있다. 쇠고기 갈레트와 마시는 대포와 음료는 과거에는 차와 전통 발효음료인 크라스가 주종을 이뤘으나, 최근 들어 크라스는 서구식 청량음료에 밀려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이와 같은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은 다름 아닌 러시아의 후한 음식 인성이다. “집만 번듯하면 뭐냐. 음식이 좋아야”라는 러시아 친구집에 가면, 재색 식사 식탁에는 예전의 여유와 넉넉한 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음이 놓인다. 친구가 책상에 건넌 빵도 보드랍게 깨서 내게 한잔 따라주며 넉넉한 인성이 대지의 향기를 맡아주는 듯하다. 러시아의 음식문화를 얘기하면서 때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식탁에 나오는 식료품의 대부분이 교외의 다차(별장)에 딸린 뒷밭에서 손수 기른 농산물이라는 점이다. 식탁 위의 향긋한 버섯 절임은 지난 여름 다차 근처의 숲에서 가족들이 함께 딴 송이버섯이 만든 것이다. 불꽃없는 유리병 속에 든 풀도 알고보면 살만치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천연 발효이다. 식욕 미진 다음을 사모바르(허기) 지방에서 전래된 차 푸리는 화로 감 주전자에서 서늘하게 따주며 여주인이 차에 넣어 먹어 보라고 권하는 점이 시원함을 보인다고 맞지도 않으면 후회하기 십상이다. 여름에 다차에서 만들어 저장해 둔 갈레트나 크레페(베리나 구즈넬레) 빵을 받은 구수한 러시아 차를 마시며 기쁜 영영 잊고 말려나.

바르진 변화는 러시아를 찾을 때마다 다 나는 그 낯선 모습에 이따금 당황하곤 한다. 하지만 가까이 지내는 러시아 친구집에 가면, 재색 식사 식탁에는 예전의 여유와 넉넉한 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음이 놓인다. 친구가 책상에 건넌 빵도 보드랍게 깨서 내게 한잔 따라주며 넉넉한 인성이 대지의 향기를 맡아주는 듯하다. 러시아의 음식문화를 얘기하면서 때

김현택 (러시아어과 교수)

우리 고향 이룰 찾기

중구 쌍이문동과 쌍림동 -인민문 두 개 있는 마을이 영동 향사마을로 되었다

중구 쌍이문동과 쌍림동 -인민문 두 개 있는 마을이 영동 향사마을로 되었다

중구 쌍이문동과 쌍림동 -인민문 두 개 있는 마을이 영동 향사마을로 되었다

문화영달샘

새 책

한도선 기록
꿈 갖은 옛날, 피 앓은 나이가
둘째/6,000원
한 여인이 가슴으로 쓴 한국사. 이 한 마디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책이다.
밀려오는 외세에 나라를 빼앗겼고 은 국민이 수난을 당했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던 남편을 따라 북한을 함께 달려 나갔던 여인의 삶을 그린 작품.
대학 노예로 일고 1,200여 봉양으로 깨달을 길이 적어 놓은 한도선 할머니의 에피소드를 담은 송상사키지 않는 범위에서 책을 엮은 것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의미있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이다.

공편

품바
일제시대부터 자유당 말기까지의 우리시대를 한과 해학으로 조명한 모노드라마이다. 품바 15주년 기념 공연으로 공연 횟수가 4000회 가까이 가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최장기, 최다공연을 깬 것을 기념해 이루어졌다.
중편연극가 최성호,박재희의 관록있는 연기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붉은 시편

독특한 영화사조와 필름을 지니며 일관성 있는 작가활동을 하고 있는 ‘비밀교사 안호’의 작품이다.
보통 영화가 7-800개의 쇼트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이 영화는 약 888개의 영화촬영물만 단 28개의 쇼트로 이루어져 례이로 기법의 대표작품으로 알려졌었다.
작품과 지향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 영화는 72년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수작이다.

생활도서권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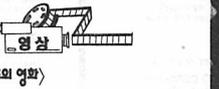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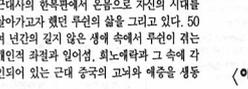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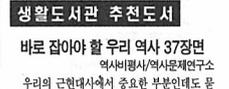
바로 잡아라 할 우리 역사 37장편
역사(원투)·역사문제연구소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도 문

무신의 삶과 사상

다섯차례(원투)를 지음 신영모,유세종 옮김
책을 배우는 것보다 사람을 배우는 것이 훨씬 쉽다. 쉬운 것 아니냐 사람 배우는 게 어렵고 맞는 것 같았다. 이 책은 송기만 중국 근대사의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고자 했던 무신의 삶을 그리고 있다. 50여 년간의 길지 않은 생애 속에서 무신이 겪은 개인적 좌절과 이념적, 회색역사와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근대 중국의 고과와 역경을 생동

알아두기

영화감독제도-원전동점심외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5월 12일로 창설 20돌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와 발전을 개관하는 개관 연을 준비중이다.
7월 1일 시행예정인 새로운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문화와 한국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권역에서 여러가지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다양하고 질적으로 풍부해져 있는 한국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국영화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온 영화산업의



*(이외의 영화)

항산	조식	중식	석식
월(15일)	소고기떡볶이 (₩1,200)	케찹치킨 (₩1,200)	햄스테이크 (₩1,500)
화(16일)	근대냉면국 (₩1,200)	오징어볶음(원투) (₩1,200)	행복국 (₩1,200)
수(17일)	소고기떡볶이 (₩1,200)	시금치만두 (₩1,200)	해장국 (₩1,500)
목(18일)	계란후라이 (₩1,200)	생선김밥 (₩1,500)	양송이밥 (₩1,200)
금(19일)	선지국 (₩1,000)	선지비빔밥 (₩1,500)	육개장 (₩1,200)
토(20일)		단짜국 (₩1,200)	

(재광: 생활협동조합·총무처 후생과)

구분	A식	B식	C식/석식
월(15일)	만두떡볶이 (₩1,000)	케찹치킨 (₩1,200)	오징어떡볶이 (₩1,300)
화(16일)	우거지떡볶이 (₩1,400)	행복스키 (₩1,500)	소고기떡볶이 (₩1,300)
수(17일)	물나물비빔밥 (₩1,200)	비트볶음(원투) (₩1,300)	두부만두국 (₩1,300)
목(18일)	불고기떡볶이 (₩1,000)	행복스키 (₩1,400)	오징어떡볶이 (₩1,300)
금(19일)	선지비빔밥 (₩1,300)	행복스키 (₩1,300)	육개장 (₩1,500)

* 본 식단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획좌담: 청년 평가와 이후 전망에 대해

사회자: 고병권(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회장, 본보 편집장)

토론자: 정명기(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회장)

이철상(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국연합 총무국, 전 권

대협 5기 의장 겸대협)

허인희(새정치국민회의 청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민주진영 단결로 대중투쟁 일궈내야

대선자금공개·내각제 저지 중심으로

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새로운 공조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상: 이번 선거는 분열과 단결의 교훈을 일깨워준 계기였다. 작년 지자체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기대는 대단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각당의 모습은 국민의 기대에 호응하기 보다는 눈앞의 이해를 많이 따지는 듯했다. 먼저 가장 큰 요인은 어느때나 민주진영 단결의 매개가 미흡한 민선운동의 효과적 활용이 없었다는 점. 다시 말해 민선운동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진영이 단결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작년 12·12와 관련하여 민주진영의 이기학 총재와 합동집회를 열었던 것이 마지막이다. 5·16이라는 기회 가 또 있었음에도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산으로 조직적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인물분류의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정당분류의 투표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신한국당이 대거 당선될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이 아직까지 신한국당이라는 정당을 대한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명기: 국민의 정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다. 시민들을 눈앞에 때 그들의 정서는 분명히 신한국당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민선운동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예로 선거마지막에 있었던 반공·반박이데올로기 정서에 대해 예측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 5·18 비대우의 해산 후 대선자금 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에도 민주운동진영을 단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허인희: 당면시국의 주요과제에 대해 최대한 성실함을 필요로 한다. 김영삼 정부의 부패(정경 도박 등을 말하는 것임) 신권에 왜 기동적으로 투쟁하지 못했는가? 실제로 유세 때 다니면서 이런 내용을 선전할 지역의 국민들은 우리에게 동의했다. 그리고 그것은 표로 나타났다. 노수석군과 관련한 투쟁들도 구체적인 분노의 폭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총선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어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 크게 민주진영의 분열과 당면 투쟁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있었다는 점으로 압축하는데 그렇다면 노군 관련 투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명기: 그 당시의 분노와 슬픔을 뛰어넘는 '교육재정확보와 대선자금 공개'라는 내용을 선전했어야 했는데, 후보와 예외의 분위기에 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친원론, 권위정당의 문제도 교육개혁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었는데 김영삼정권의 허구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반 신한국당 정서로 모아내지 못했다.

이철상: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일 당일에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민주진영의 분열이 학생들에게 혼란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반 신한국당이라는 구호가 대중들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으로는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다. 좀더 세심한 지휘나 지도, 주안다는 결집이 필요했다.

정명기: 피극의 투쟁을 통해 폭로해야 할 애도. 그렇지만 못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했던 금권, 관련 선거가 부당한 통합선거법 적용에 대해 선전해야 했다.

사회: 공경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 운동 등 일제적인 조직화가 부족했다는 점과 내용적 풍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공통된 평가인 것 같다.

민주후보로서 출마했던 전국연합의 독자후보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철상: 전국연합의 독자후보는 4명이었다. 총선결과에서 크게 못할 만한 것은 못났다는 얘기다. 그러나 가이상의 득표를 했다는 점에서 선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것을 통해 전국연합의 정치력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합은 오히려 그 시기에 북한수해등도 지원사업과 노수석군 관련 투쟁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었다.

허인희: 4인의 독자후보는 전체 정국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지만 이후 민선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의 전략은 반신한국당이다. 이것에 충실하면서 이후 전술로 신한국당 후보를 실질적으로 낙선시킬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4명의 후보는 공존과 성과를 남기며 자체 정치역량의 강화라는 과제를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명기: 민주대 반민주라는 전선이 명확하지 못하다. 5.18 투쟁을 정치적 성과로 남기면서 실제로 신한국당을 낙선시킬 수 있는 후보들을 지지해 힘을 실어줘야 했다. 야권성정의 표본 분열되는 인터페이스를 넘겼다.

사회: 독자후보 배출을 통해 자체의 정치적 역량강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알았다고 보면 되겠다. 어쨌든 여러가지 요인으로 신한국당이 어부지리를 많이 내던 것 같은데 이후 신한국당의 홍보와 남북관계 등의 정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가?

정명기: 신한국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자기 주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집권후반기의 안정화를 위해 국민생활이 나 노동, 인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탄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통해 반공, 반박이데올로기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전쟁 회담을 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상: 유신반당과 5·6공 정당, 거기에 문민총재라는 내각제 현실화의 호조인이 갖춰졌다. 분열투쟁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치 안정화를 꾀하는 개연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새로운 야권 공조가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선운동은 반신한국당이라는 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김영삼 정권의 정국 드라이브를 저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허인희: 내각제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며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내각제를 막으려면 민주진영의 단결이 관건이다. 야권은 현실정치에서는 재의 세력이 '단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움직인다. 내각제는 국민의 의사를 표명, 주권행사를 더 적게 하는 것이다. 내각제 저지를 위해 투쟁할 시야가 야권에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사회: 과감한 정국주도와 내각제 개헌 가능성 등 위험한 요소가 많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투쟁이 필요할 텐데 대선자금 공개와 5·18 특검제 도입과 관련한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정명기: 대선자금 공개와 김영삼대통령의 야권배선이다. 앞으로 모든 투쟁에서 선전과학생들은 사활을 걸고 이것을 요구할 것이다. 범민주연합의 대거 동원이 힘들더라도 이런 투쟁의 내용을 치열하게 이끌어내야 이번 야권의 단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5월 투쟁은 이제 좀더 분절적인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전,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허인희: 정권이 말한 투쟁들은 민선 운동 세력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그 결과가 민선운동 자체의 정치역량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상: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학생과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일당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의 정치역량을 강화해 나

갈 것이다. 청년학생들도 반미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이다. 현재 국민의 반미·통일 정서는 미군기지 반환운동, 월드컵 공동유치라는 사안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것을 5·6월 힘있게 선전선동해 매듭지어야 한다.

정명기: 합법적 공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합법을 버려다 보면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 같다. 대중 투쟁속에서 조직을 키워내고 의사회화해는 사람들이 올 때 투쟁을 통해서도 자기 역량을 축적했다. 합법이란 비합법이란 치열함과 연신성이 중요하다.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두가지 원칙을 통해 비합법의 공간을 합법화시켜 나가야 한다.

허인희: 이후 계속되는 열사현 투쟁을 하면서 열사들의 요구였던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선전하고 이를 통해 반신한국당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기무사의 해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 선거에서 자행된 김영삼정부의 불법, 관련 선거에 대해서는 적극 폭로할 것이다.

정명기: 청년학생·계약역량 강화해야

사회: 총선이후의 과제로서 치열한 대중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선거라는 합법공간을 통한 심판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인가?

허인희: 선거도 하나의 전술일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선거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도 과거의 전민행방이든 이를 통해 심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철상: 현재의 사회재계 속에서 선거가 개량공천인가, 심판의 장인가 하는 문제인데, 노동자의 정치참여 등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장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반공이데올로기만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그런 정서를 갖게 하는 사회·법률적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먼저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분노가 모아졌을 때는 무력적인 방법으로 합법일 수 있다.

정명기: 원칙적으로 범민주대연합의 구도에서 전민행방이라는 방법을 통해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도 전민행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민중이 투표를 통해 평가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래야 선거로 승리할 후에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허인희: 제도정치에서 일하다 보니 얻은 교훈이 있다. 첫째, 제도적 합법성이 대중의 동의를 얻는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선운동 영도 국민들의 신뢰와 안심을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명기: 합법적 공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합법을 버려다 보면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 같다. 대중 투쟁속에서 조직을 키워내고 의사회화해는 사람들이 올 때 투쟁을 통해서도 자기 역량을 축적했다. 합법이란 비합법이란 치열함과 연신성이 중요하다.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두가지 원칙을 통해 비합법의 공간을 합법화시켜 나가야 한다.

허인희: 이후 계속되는 열사현 투쟁을 하면서 열사들의 요구였던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선전하고 이를 통해 반신한국당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기무사의 해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 선거에서 자행된 김영삼정부의 불법, 관련 선거에 대해서는 적극 폭로할 것이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대선자금 공개와 김영삼대통령의 야권배선이다. 앞으로 모든 투쟁에서 선전과학생들은 사활을 걸고 이것을 요구할 것이다. 범민주연합의 대거 동원이 힘들더라도 이런 투쟁의 내용을 치열하게 이끌어내야 이번 야권의 단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5월 투쟁은 이제 좀더 분절적인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전,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허인희: 정권이 말한 투쟁들은 민선 운동 세력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그 결과가 민선운동 자체의 정치역량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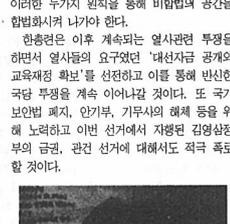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이철상



고병권

청년학생·계약역량 강화해야

사회: 총선이후의 과제로서 치열한 대중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선거라는 합법공간을 통한 심판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인가?

허인희: 선거도 하나의 전술일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선거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도 과거의 전민행방이든 이를 통해 심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철상: 현재의 사회재계 속에서 선거가 개량공천인가, 심판의 장인가 하는 문제인데, 노동자의 정치참여 등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장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반공이데올로기만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그런 정서를 갖게 하는 사회·법률적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먼저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분노가 모아졌을 때는 무력적인 방법으로 합법일 수 있다.

정명기: 원칙적으로 범민주대연합의 구도에서 전민행방이라는 방법을 통해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도 전민행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민중이 투표를 통해 평가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래야 선거로 승리할 후에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허인희: 제도정치에서 일하다 보니 얻은 교훈이 있다. 첫째, 제도적 합법성이 대중의 동의를 얻는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선운동 영도 국민들의 신뢰와 안심을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정명기: 더 어려워지면 더 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전이 실패할수록 대중들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한 정세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지난 4.11 총선결과를 바라본 많은 이들은 이번이 놀라워했다. 수도권에서의 신한국당의 약진, 새 인물들의 권내 진출, 그러나 이번 총선은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이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총선을 준비해왔던 많은 이들은 총선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내야 할 것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는 지난 12일 (금) 총선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 내용은 총선직후에 어떤 심도 깊은 논의나 조직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좌담에 참여한 세 사람의 청년운동가들을 통해 '총선'의 희망과기를 해보았다.

좌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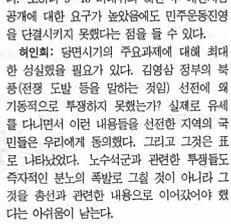
사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하면 지역분할구도나 여권했다는 점과 신참의원이 많이 당선됐다는 점, 민선운동의 독자후보들이 모두 탈락했다는 점 등을 예기할 수 있다. 또한 국민회의가 서울에서 예상을 뒤엎고 18석 확보라는 미진한 성과를 거둔 점 등 이번 선거가 담초의 예상과를 많이 달렸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허인희

분열된 형태로는 승리할 수 없다

허인희: 먼저 국민회의의 수도권 실패의 원인으로서는 북한 전쟁 도발 등 언론의 공세라는 객관적 요인과 함께 '사 필승론'을 포함한 분열을 들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분열된 형태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정국에서는 아직껏은 여소야대의 형태를 띠고 있음은 국민회의의 앞으로 정국주도의 주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



정명기

인권탄압·전쟁 책동 집권후반 안정화정책

정명기: 민주대 반민주라는 전선이 명확하지 못하다. 5.18 투쟁을 정치적 성과로 남기면서 실제로 신한국당을 낙선시킬 수 있는 후보들을 지지해 힘을 실어줘야 했다. 야권성정의 표본 분열되는 인터페이스를 넘겼다.

생활의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천하를 얻고도
함진의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려 하지 않았던 나폴레옹**

새벽 5시,
커피잔잔으로 잠을 깨고
왕제의 자리로 가는 나폴레옹.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어느 아침, 나폴레옹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유럽대륙의 반을 발아래에 둔
대제국의 황제로서 아침,
아니 새벽부터 해야 할 일이
언제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나폴레옹.
만인이 우리를 보는 황제의 자리-
권력이 주는 달콤함 만큼
책임져야 할 많은 임무와 고뇌.
나폴레옹은 그래서, 새벽에 부스스한 정선용
커피잔으로 말끔히 추스르셨다.
커피잔잔으로 시작하는 황제의 하루.
그때, 최고의 자리에도 커피가 있었습니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평가 파악한 결단이 필요한 시간.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공연히 우울해지는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힘찬 결의를 다지는 시간.
커피잔잔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부드러운 향기로 물들이는 커피잔잔.
매마른 삶에 향기로운 느낌향기로
다가오는 좋은 친구

동서식품

■ 등록금, 그 뿌리를 알자 - ⑥학비감면비

'최대학생의 최대혜택'은 집행내역 공개에서부터

학비감면비는 96년 학생납입금 총액 52%의 10%인 52%6천만원에 해당한다. 교육부령 제60호 제4조 제3항인 '사립대학은 학과별 원안 10%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교 학생 1만3천명중 적어도 1천300명이 학비의 전액을 감면받고 있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그러나 실제로 전액감면은 전체 5%도 미치지 않을 것인 반면 학비감면비의 수혜인원은 1만3천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본교 96년도 지출예산서를 보면 학비감면비의 수혜인원은 연 3천여명이라고 명시돼있다. 한 학기당 1천5백여명인 셈이다.

한편 올해 학비감면비는 등록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94년에도 비해 14% 늘었다. 14%는 수혜인원을 늘리거나 장학금액수를 늘리는 데 쓰여야 한다.

학 장학금지급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5.교과부장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재공하는 근로학생 6.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7.기타 각 단과대학 장학금지급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이상은 장학금 지급대상이다. 학비감면비는 여기서 1, 5, 6번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상적학과 과 근로장학금의 합계액이다. 그렇다면 전체 52%6천만원에서 상적학과 과 근로장학금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 이에 대해 행정서비스 장학담당 탁경구씨는 "모른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각각의 장학금에 대한 지급액 생수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과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발칙기를 꺼려해서 알바무리는 건지, "왜 모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원스러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 심사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학과장이 쥐고 있는 장학금'이라는 외부장학금의 별명인 '선발과정상의 폐쇄성'과 '학생참여배제'로 인해 얻어진 것이다.

장학금 항목중의 하나인 동아 장학금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로 돈의 출처 부분이다. 이 장학금은 지출예산중 특별사업직접 예산금의 이차에서 나온다. 순차 재단장입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예산에서 책정된 돈의 이차인 것이다.

한편 학내 재정부문에서 노력을 재공하는 근로학생에게 지급되는 근로장학금은 학생회간부들이 주 요대상자이다. 그러나 이 장학금에는 이수학생 170명, 2.0 이상이 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순차적으로 근로장학금은 학생회사무로 일 할것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금액인만큼 성격과 관계없이 지급되어 왔다. 성격조정의 '출생선분'은 군사특재정기시험 학생회지 차출을 탄압의 일환으로 탄압한 '사생'이기 때문이다.



학생납입금의 10%에 해당하는 학비감면비는 그 선발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다

'장학금 살리기'를 위한 제안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의 혹은 등록금 미납이다. 외부 장학금이 계속 고려된다. 금액에서부터 선발기준에 이르기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1년내내 보정까지 오고 금액도 20%인상에서부터 전액까지 천 차만별이다"라고 탁경구씨는 외부 장학금이 계획적으로 책정될 수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이 외부장학금은 각 단과대로 순차 지급되고 있다. 각 단과 장학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책임여부를 시사한다. 그러나

단위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과 학생회는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생회 간부들은 노력의 댓가를 지급받지 못한다. 장학금을 지급받는 단과도 사정이 나은 것은 아니다. 행사가 있을 시 나오는 공비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돈이 장학금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학생회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드러내주는 한 단면이다.

집행내역, 공개화 시키자

교육의 최대 수혜자는 대학과 국가이기 때문에 대학당국과 국가는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외대입금 집행내역 공개화 시키자. 공고를 통해 공개토의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선발 과정까지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보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많이 육성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학금은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금액이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집행내역 공개 부분이다. 외부장학금이 아니라 장학금을 공개화시키자. 공고를 통해 공개토의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선발 과정까지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보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많이 육성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목적을

57억6천만원+α 수혜자 3천명 이상

1.상적이 우수한 자 2.가정사정이 곤란한 학비도움이 어려운 자 3.본교의 교육 및 재직중 순직한 교직원 직계자녀 4.학생회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로 소속대



해마다 10%를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률.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 학비감면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어난 액수만큼 실질적인 수혜자가 늘었는가' 라는 점이다

외대와 나 예절질서는 신뢰회복의 첩경

서은택 (용인캠퍼스 총무과장)

흔히 대학의 주체를 교수·학생·직원의 3자관계로 표현한다. 다른말로 하면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대학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교과"에 대한 친절과 직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배우고" 그리고 이 과정을 "도야"는 유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동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식의 습득과 훌륭한 사회인 양성이란 대학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시 각 주체간의 믿음

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학의 3자관계의 관계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고 의욕으로 표출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원의 불철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자주 제기되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동양식과 자세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비둘기협판

이문벌

□ 알립니다

· 찬양팀 여러분 중간고사 승리하세요. (UBF)

· 러시아어과 사물함 재배치가 있습니다. 기간: 당선이 완료된 순진부터 ~ 4월 16일(화)까지 사람이 많으면 추첨으로 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 과방에 오셔서 러시아어과 선구대면식 사진도 보셔요. (러시아어과 학생회)

· 저희 우리말 연구회에서는 동아리 연합회 한마당 행사의 하나로 우리말 풍자대회를 열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때: 4월 16일(화) 늦은 12시 30분

왕산골

□ 축하합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명식이 형이 축하 딱지 따게 됨을 무지무지 축하합니다. (외대화보사 일동)

· 생활을 맞춘 동구어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체코어과

비둘기협판

· 제외대 기리고 동문회 합니다.
 때: 4월 17일(수) 늦은 5시
 곳: 시계탑 (상문고 동문회)

· 민족상징 96상간지 정기 총회 및 해오름식이 있습니다.
 때: 4월 16일(토)
 곳: 노천 (상대 학생회)

· 박관정 4월 22일(화), 강용운 4월 24일(수) 이어서 4월 30일(화) * 폴란드어과
 고경진 4월 19일(금), 함규한 4월 21일(일) * 유고어과
 김민경 4월 22일(일) * 캄보디아어과
 김경희 5월 3일(금) * 루마니아어과
 추동수 4월 20일(토), 홍금희 4월 22일(일) (동구어대 학생회)

· 제삼의 4월 13일(토) 생일을 축하해요 (사진을 좋아하는 친구)

□ 알립니다.

· 매주 수요일엔 '왕산시장-환경보존운동'이 있습니다.
 때: 늦은 1시
 곳: 이문학관 계곡입구 물레방아 준비물: 쓰레기 줍기에 적합한 복장 (왕산을 사랑하는 이들)

· 제외대 기리고 동문회 합니다.
 때: 4월 19일(금) 늦은 6시 30분
 곳: 하나하얀 열 모나리자(술집)
 회비: 10,000*
 제외대 96학번 471명회 참석 (기리고 동문회)

□ 감사합니다.

· 지난 4월 3일(수) 늦은 10시경 저희들을 모전에서 참가해 태워주셨던 무역학과 외 학원 프란스 승용차의 주인되시는 분과 그 친구분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밤에 가신다면 운전 조심하세요. (The Argus 승승기차 전세팀, 이현경 올림)

· 발췌 중간 고사 시작하는 때로군요. 이번회를 끝으로 외대학보는 2주간 정간합니다.
 기ذا도 시험은 봐주세요.
 외대인 여러분 시험 잘 보십시오. (칙한 비둘기)

· '비둘기협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문·왕산 기자실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2층 (0335)30-4112

4794

서울 총학, 정기 총회 및 해오름식

이후 청량리역까지 거리시위



지난 4월9일(화)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출범식 및 해오름식이 노천극장에서 있었다. 학생들은 출범식 후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며 청량리역까지 평화적인 거리시위를 했다.

교육재정 확보 '대선자금 공개' 투쟁의 결실을 다지는 정점으로 마련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정기총회 및 해오름식이 지난 9일(화) 3시 약 4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총학생회의 결성으로 시작된 식전행사는 △노래패창 연합회의 노래 배우기 △의대·과대·정대·영등포 공영으로 협차계 진행되었다. 1부 마당은 '축하의 장'으로서 총장인 사와 동총련의 강, 이철호·오준열·허용갑 등 역대 총학생회장의 축하의 말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총학생회장을 지낸 하용갑군은 '열사들의 잊지 못할

음으로 인하여 몹시 슬프다. 하지만 그들과 뜻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청년들은 힘을 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제 30대 총학생회 발족을 기원했다. 이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 △시간 사업 보고 등이 이어졌다.

2부 '보고의 장'에서는 △1만 3천 요양원에 대한 단편서 해설 △상반기 학자 운동 평가 △'고 노수석' 열사 상봉 보고 및 현 정세 약평 △11 총선 투쟁과 대선자금공개에 대해 보고했다. 마지막 식순인 문예공연에서는 '고 노수석' 열사를 추모하는 살풀이춤 공연되었으며 이어 출범

선문문을 낭독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총학생회장 박성동(상경·경영 4)과 부총학생회장 나인우(중앙·이과 4)군은 '열사들의 죽음에 잇따라 이어지는 이시기에는 출범선언문의 낭독보다 실천투쟁이 중요하다'라며 거리시위를 결의하고 청량리역까지 실천투쟁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포스트투쟁과 학생회장 차재호(3)군은 '해오름식과 정기총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연·사과와 함께 생활에 대해 바른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상경대, 18일 해오름식

경상대, 지난 9일 진행

서울

○99년도 상경대의 발전 방향과 선후배간의 민심의 장이 될 상경대 정기총회 및 해오름식이 오는 18일(수)에 열린다. 올해 상경대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와 함께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노래패, 율동패 등의 문예공연으로 시작되며, 학부제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한 경영학과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경상대부의 운영위원회의 소거 △1차 상경대학생표의대의(상학대학) 평가 △상반기 사업 보고가 이뤄지며 상경대 회보에서는 계열화 이후 생활물과 대응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또한 1학년 학생회 구성에 따른 회장에게에 대한 논의된다. 행사 준비를 맡은 최재홍(경제 3)군은 '많은 상경대 학생들이 참여해 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1학년 학생회를 한마음으로 주인

연협, 수습학교·정기총회 개최

5개 언론사 화합 다지는 자리로

외대내 언론 5개사(외대학보·The Argus, 이문·왕산 교육방송국, 외대라디오) 수습기자들에게 바른 기자의 상을 제시할 수습학교가 26일(금), 27일(토) 이틀간 용인 캠퍼스 수련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수습학교에 이어 용인연합회는 언론 5개사 화합을 다짐 해 대외대회와 정기총회가 열린다.

수습학교에서는 △MBC 포럼을 통해 본 보도연보와 현 대외연보에 대한 견인 △연보에 대한 견인 등이 준비되고 있으며 본인들의 견인도 교육이 이루어진다. 27일(토) 용인캠퍼스에서는 피구·족구·농구 등의 체육대회가

되는 정으로 이끌어난 경상대 해오름식이 지난 9일(화)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문동장에서 열렸다.

한일과 같은 행사로 학생회 출범을 선포하며 시작된 이날 해오름식 1부는 단대 학생회 및 각 과회장 소개로 진행됐다. 이어 경영정보학과 그룹과 인사 이덕수, 경상대 노래패 '늘푸른 청년' 및 초창가수 이정열씨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2부 정기학생총회에서는 고 노수석 열사, 4.11총선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마지막 3부에는 새내기 정기기자 및 과별 담임들로 이루어진 해오름식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경상대 선전부 교영정(경영정보 1)양은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600 정상인을 포함의 정으로 이끌어나가 못해 아쉬웠다'라며 '이후에는 학생들이 학생회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인 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이사람

□ '고 노수석' 열사 시인 규명위해 철농단에 참가한 김성진 군을 만나

"불의 앞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학생이 아니다"



고 노수석 열사의 관을 지키는 사수대에 참가한 것이다. "고 노수석 열사의 관을 지키면서 노수석열사의 어머니를 뵈니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마음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 다"라며 그 당시를 회고한다.

김군은 지난 29일(금)에 있었던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위에도 참가했다고 한다. 노수석군이 사망한 당시 자신도 목숨에 있었던데 그 때 물 위에서 건넌들이 학생들을 끈으로 매려는 자기가 '두 두둑'하며 끌렸고 자신도 맛을 봤다고 한다.

"노수석 열사도 분명히 맞아 죽었다는 건데 시인이 실종이라 하니 말도 안된다"라며 김군은 흥분했다. 그는 직영관 목소리로 말했다.

노수석 열사의 장례를 치를 때에는 그 사수대에 참가했던 사람에 대한 규탄시위가 있겠고면서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김군은 커다란 만장을 들고 그날따라 유난히 새하얀 옷을 바람에 맞서 연세대에서 시

황순수 기자

대 학 단 신

오는 5월부터 실시할 세미나의 참가희망학생을 모집 하고 있다.

물리학과·수학과 체육대회

물리학과·수학과 친선체육대회가 지난 10일(수)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문동장에서 개최됐다. 두과의 유대강화라는 취지로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날씨관계로 축구·농구 2종목으로 치러졌다. 이어 각각 신·후배들의 대면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와 관련 물리학과 학생회장 유승준(3)군은 "새내기들의 참가가 저조해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인간관계를 넓혀주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사연, 학술지 발간

한국사회연구회(한사연)는 '내일은 민중시대'라는 학술지를 지난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학생들에게 무료배포했다. 대내외적 사회적 사안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발간된 이번 학술지는 그동안 종이내에서 실시해온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회장 이상영(인문·사회 2)양은 "처음에는 각종 원문만 교육이 어려웠지만 심도깊은 고민을 통해 참의미를 얻었다"라며 "이번 학술지를 통해 접목되고 있는 사회과학연구의 학내외 동시발달을 함께 성장하는 학내외 대학생들이 많았으면 한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한사연은

이것만은 지킵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교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96년 3월 25일부터 학생순찰대인 '외대사랑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캠퍼스내의 무질서와 위법인에 의한 폭력, 심야음주, 풍기문란행위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외대사랑순찰대'에 대하여 재학생들 여러분은 아래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협조를 요하는 사항
 - 교내에서의 음주, 고성방가행위 금지
 - 각종 폭력, 풍기문란행위 금지
 - 야간에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 교정에서 운전연습 및 불법주차 행위 금지
 - 야간에 운동(농구장) 행위 금지
 - 외부인의 야간 출입통제를 위한 학생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협조

1996. 4.

외 대 사랑 순찰대

19일 학부모 간담회 열릴 예정

외대발전 기금 마련·학교 소개의 장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유발과 외대발전기금마련의 목적이 되고 연구협력처에서 주최하는 신입생학부모 간담회가 오는 19일(금)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교무처·학생처 및 연구협력처 처장들의 외대 발전에 대한 소개 △신입생반장들의 학교발전상황 △의국학협동연구센터 건설 상황 및 학교발전방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이번 학부모간담회는 본교에서 초청장을 신일성 자택으로 발송하여 참가신청을 한 약 14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소개에 이어 학부모와 교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있

'96 하계 영어연수 신청자 모집

- 연수조건
 - 연수장소: UC Berkeley
 - 연수기간: 1996. 7. 10~8.23(6주간)
 - (5주 연수 후 미국서부 및 하와이관광 포함)
- 연수신청자 모집
 - 모집인원: 신학생 30명
 - 지원서 배부기간: '96. 4. 8(월)~4. 22(월)
 - 지원서 배부처: 단과대학 교학과 및 각 학과장실
- 소요경비
 - 총 예상경비: 미화 \$4,810
 - 경비내역: 수업료(문화여행비용 포함), 기숙사비, 의료보험료, 수속관리비(여권, 비자 발급 등 관련), 항공료 및 관광비용 등, 교재는 현지 발판시 후 별도 구입
- 학점인정
 - 연수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의 '96학년도 제2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해외연수영어' 과목으로 표기함.
 - 위 학점은 교양 및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되 '96. 2학기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3학점까지만 인정함.
- 지원서 접수
 - 지원서 접수기간: '96. 4. 10(수)~4. 24(수)
 - 지원서 접수처: 연구협력처(서울캠퍼스 본관 1층)
- 기타
 -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여권 및 비자발급 관련업무는 연구협력처에서 일괄 처리함.
 - 연수관련 문의: 연구협력처 연구 협력과 ☎ 961-4387, 4040

1996. 4. 한국의국어대학교 연구협력처장

대학 이등 병무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용인캠퍼스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병역문제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전문요원 4~5명으로 구성된 '대학 이등 병무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일시: 1996. 5. 16(목) 10:00~16:30
 ○장소: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로비
 ○병무청 컴퓨터를 이등 설치하여 정확한 병무상담을 합니다.

·본적이나 주소가 전국 어디든지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입영 예정일자' 등 현재의 병역처분 상태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영연' 등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입영연', '입영 기일연기' 등 각종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접수하며, '지원병(중·해군, 어학병, 학사과정 등)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수비서류 미리 준비시 가능)도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과정에 대한 각종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현역입영(상근대비역), 공익근무요원, 신의 기능연수, 재신제사등 병역의무 이행과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병역 고충민원도 접수처리 합니다. ·병역관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병역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4. 수원지방병무청장

서평 - 부자의 그림일기

전형인물 속에 드러난 진실된 삶

‘오세영’이란 이름은 진지한 만화보기를 수 행한 사람 혹은 만화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한탄쯤은 들어맞을만한 이름이다.

오세영 만화에서 바로 리얼리즘 성취의 가능성을 만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만화예술의 운명’을 밝히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오세영은 책 말미에 실린 대답에서 만화는 ‘세상의 충실한 반영’이며 ‘리얼리즘은 예술의 시작’이고, ‘사회속에 일조하는 소의를 제거하는 데 일조하는 만화가 나와야 한다’고 분명한 작자적 관점을 밝히고 있다.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의 타입으로 ‘유형화’되기 쉽다. 이러한 거의 모든 작품에서는 해설과 통달, 열지가 등장한다. 유형화된 인물은 작자들에게는 창작의 부담을 덜어주며 독자들에게는 수용의 부담을 덜어준다.

작가는 유형화된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건을 배치하면 되고 수용자는 이전부터 형성된 ‘해설’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가 새롭게 지지를 사건을 박진감 넘치게 따라가지만 불편 되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유형화는 인기 작품의 유행을 기준으로 유사한 ‘장르만화’로 발전한다. 장르만화로 접어들면 각 등장인물들의 생김새에서부터 작풍 전개방법과 세부 묘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유형’이 결정된다. 이런 장르적인 관습은 창작자와 수요자가 동시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업적 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오세영 만화는 이런 장르만화의 문법, 유형

화된 인물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 캐릭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유사한 모습을 한 인물도 등장하지 않는다. 각 개별작품에서 뛰어난 전형인물들이 요소에 자리잡아 삶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책은 5가지의 이야기로 엮여 있다. 부자란 이름의 가난한 한 아이의 그림일기와 땅콩 행태의 이야기 등 이유없이 빼앗길까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

‘남은 쇠가죽 찢지 속의 비밀’이란 단편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는 분단의 아픈 상처를 직 접적으로 보여주는 분단 1세대로, 아버지는 분단의 상처를 거부하는 2세대로, 손자인 화자는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3세대로 그려 지다.

오세영은 분단의 상처를 그리는데 있어 ‘고 황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하는 식의 예상이 능한 환타지를 접어두고 ‘남은 쇠가죽 찢지’를 목숨처럼 지키는 할아버지와 그 찢지의 비밀이라는 긴박감 넘치는 서술구조를 선택해 분단 가족 3세대의 정황상을 생생하게 도출하고 있다.

예술로서 만화에 대해 논하게 되면 적용과 같은 언젠가 어떤 만화가 ‘좋은 작품’인가를 묻는 낯익으면서도 늘상 새롭게 다가오는 질문에 ‘부자의 이야기’를 말하되 예전에 박정호 교수의 말을 빌려 얘기하고 싶다. ‘시 안이 자신의 감정, 사고, 지식, 의지 그 어느 일면에도 치우침 없는 지공무사(至公無私)’.

지공무사의 경지에 도달한 오세영의 작품속에서 예술의 진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정성이 (동양·아름어 3)



만화는 “세상의 충실한 반영이며, 리얼리즘은 예술의 시작이고, 사회속에 일조하는 소의를 제거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서평 - 자주의 길

사고와 행동의 과학화를 위한 지침서

자주의 길



“현상적인 민주화의 흐름속에서도 애국의 고리를 풀지 않는 한 우리 역사가 사실상 한치도 전진할 수 없다. 민주화와 통일의 근저에 자주의 의 파제가 있다”

21세기를 앞둔 세기말에 19세기말, 20세기 초엽에 유행했던 온갖 관념적 사조들이 미처 무언가 대단한 새로운 것인 양 위풍동 당당하게 풍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 혼란한 현실에서 ‘자주의 길’은 정말로 단기필마와 같은 용감한 책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처음 이 책을 대하면서 가진 느낌은 그 제목이 주는 과격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요즘 출판계는 운동권 색채가 드러나는 제목과 내용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출판사의 재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주의 길’이라는, 일견 고학창연하고 혹은 과격한 느낌까지 드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책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준다.

“현상적인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도 애국의 고리를 풀지 않는 한 우리 역사가 사실상 한 치도 전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는다. 민주화와 통일의 근저에 자주의 파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으로 이 답변은 한국 사회의 변화·발전에서 ‘자주’라는 개념이 차지하는 결정적이고 규정적인 의미와 최근 한국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근로대중의 자주의 진흥’을 반영하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 답변을 최근 ‘다시 미국을 생각하다’는 화두를 던지며 탈냉전시대에 한국사회의 발전적 변화와 한미관계의 올바른 정립이 지닌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는

이상적교수의 책과 더불어 대단히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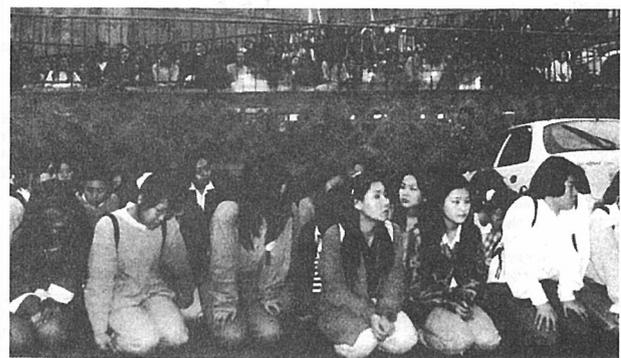
학내나 이론전영에서는 잊혀지다시피 하고 있으나 대중심전영에서는 오히려 더욱 가치적으로 나날이 있는 ‘자주’의 문제를 다시금 공식적으로 제기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이 갖는 남다른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서 한국의 사회성을 포괄하는 사회과학적 논쟁이나 논의의 소강상태로 들어가고 이런 측면에서는 시대적 요청인 불필요한 행위까지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다시금 운동의 과학화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활성화를 들고 나온 점도 평가할 만하다.

민족과 사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청년이 지닌 역할과 비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청년은 어느 세대보다 사회과학적 논의에 열려 있고 감수성이 많은 세대이다. 또한 청년의 역할은 현실의 선봉대로서 한 손에는 청년이 가진 무뎠던 열정을, 다른 한 손에는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명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민족 민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견인차로서 청년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

‘자주의 길’이 이러한 청년의 힘을 바탕으로 경제운동의 앞길을 개척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강민홍 (서영·독일어 4)



사진소필
누군가가 등투를 위해 단식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린 그 누군가를 어떻게 얘기 했다. 그들한 조소의 약간의 외경심으로 말하지 않았던가? 칼로일 어느때처럼 허둥지둥 성신여대 교문을 들어섰다. 팔척이는 권은 풀링카드들... 죽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여일 난 어떤 모습이었는지. 일만살, 하늘을 향해 허우적거리며 ‘희정’을 퍼뜨리는 부모님이 계셨다. 1천여명의 학우들이 하나 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했다. 울어야 했다.

고영진 기자

작은 외대 이야기 #6. 만화모임 '95' 박계용

시련은 다가오면 해볼은 건 없고 힘만 받아야... 공부는 안 돼... 일주일...
이 생애가 적임지! 울 A를 받쳐줄수...
Lesson 1. 가장 불편한 날에 가장 쉬운 배운 것...
Lesson 2. OHP로 권위자의 행동...
Lesson 3. 내 인생...
Lesson 4. 내 인생...
Lesson 5. 내 인생...
Lesson 6. 내 인생...
Lesson 7. 내 인생...
Lesson 8. 내 인생...
Lesson 9. 내 인생...
Lesson 10. 내 인생...
Lesson 11. 내 인생...
Lesson 12. 내 인생...
Lesson 13. 내 인생...
Lesson 14. 내 인생...
Lesson 15. 내 인생...
Lesson 16. 내 인생...
Lesson 17. 내 인생...
Lesson 18. 내 인생...
Lesson 19. 내 인생...
Lesson 20. 내 인생...
Lesson 21. 내 인생...
Lesson 22. 내 인생...
Lesson 23. 내 인생...
Lesson 24. 내 인생...
Lesson 25. 내 인생...
Lesson 26. 내 인생...
Lesson 27. 내 인생...
Lesson 28. 내 인생...
Lesson 29. 내 인생...
Lesson 30. 내 인생...
Lesson 31. 내 인생...
Lesson 32. 내 인생...
Lesson 33. 내 인생...
Lesson 34. 내 인생...
Lesson 35. 내 인생...
Lesson 36. 내 인생...
Lesson 37. 내 인생...
Lesson 38. 내 인생...
Lesson 39. 내 인생...
Lesson 40. 내 인생...
Lesson 41. 내 인생...
Lesson 42. 내 인생...
Lesson 43. 내 인생...
Lesson 44. 내 인생...
Lesson 45. 내 인생...
Lesson 46. 내 인생...
Lesson 47. 내 인생...
Lesson 48. 내 인생...
Lesson 49. 내 인생...
Lesson 50. 내 인생...
Lesson 51. 내 인생...
Lesson 52. 내 인생...
Lesson 53. 내 인생...
Lesson 54. 내 인생...
Lesson 55. 내 인생...
Lesson 56. 내 인생...
Lesson 57. 내 인생...
Lesson 58. 내 인생...
Lesson 59. 내 인생...
Lesson 60. 내 인생...
Lesson 61. 내 인생...
Lesson 62. 내 인생...
Lesson 63. 내 인생...
Lesson 64. 내 인생...
Lesson 65. 내 인생...
Lesson 66. 내 인생...
Lesson 67. 내 인생...
Lesson 68. 내 인생...
Lesson 69. 내 인생...
Lesson 70. 내 인생...
Lesson 71. 내 인생...
Lesson 72. 내 인생...
Lesson 73. 내 인생...
Lesson 74. 내 인생...
Lesson 75. 내 인생...
Lesson 76. 내 인생...
Lesson 77. 내 인생...
Lesson 78. 내 인생...
Lesson 79. 내 인생...
Lesson 80. 내 인생...
Lesson 81. 내 인생...
Lesson 82. 내 인생...
Lesson 83. 내 인생...
Lesson 84. 내 인생...
Lesson 85. 내 인생...
Lesson 86. 내 인생...
Lesson 87. 내 인생...
Lesson 88. 내 인생...
Lesson 89. 내 인생...
Lesson 90. 내 인생...
Lesson 91. 내 인생...
Lesson 92. 내 인생...
Lesson 93. 내 인생...
Lesson 94. 내 인생...
Lesson 95. 내 인생...
Lesson 96. 내 인생...
Lesson 97. 내 인생...
Lesson 98. 내 인생...
Lesson 99. 내 인생...
Lesson 100. 내 인생...
Lesson 101. 내 인생...
Lesson 102. 내 인생...
Lesson 103. 내 인생...
Lesson 104. 내 인생...
Lesson 105. 내 인생...
Lesson 106. 내 인생...
Lesson 107. 내 인생...
Lesson 108. 내 인생...
Lesson 109. 내 인생...
Lesson 110. 내 인생...
Lesson 111. 내 인생...
Lesson 112. 내 인생...
Lesson 113. 내 인생...
Lesson 114. 내 인생...
Lesson 115. 내 인생...
Lesson 116. 내 인생...
Lesson 117. 내 인생...
Lesson 118. 내 인생...
Lesson 119. 내 인생...
Lesson 120. 내 인생...
Lesson 121. 내 인생...
Lesson 122. 내 인생...
Lesson 123. 내 인생...
Lesson 124. 내 인생...
Lesson 125. 내 인생...
Lesson 126. 내 인생...
Lesson 127. 내 인생...
Lesson 128. 내 인생...
Lesson 129. 내 인생...
Lesson 130. 내 인생...
Lesson 131. 내 인생...
Lesson 132. 내 인생...
Lesson 133. 내 인생...
Lesson 134. 내 인생...
Lesson 135. 내 인생...
Lesson 136. 내 인생...
Lesson 137. 내 인생...
Lesson 138. 내 인생...
Lesson 139. 내 인생...
Lesson 140. 내 인생...
Lesson 141. 내 인생...
Lesson 142. 내 인생...
Lesson 143. 내 인생...
Lesson 144. 내 인생...
Lesson 145. 내 인생...
Lesson 146. 내 인생...
Lesson 147. 내 인생...
Lesson 148. 내 인생...
Lesson 149. 내 인생...
Lesson 150. 내 인생...
Lesson 151. 내 인생...
Lesson 152. 내 인생...
Lesson 153. 내 인생...
Lesson 154. 내 인생...
Lesson 155. 내 인생...
Lesson 156. 내 인생...
Lesson 157. 내 인생...
Lesson 158. 내 인생...
Lesson 159. 내 인생...
Lesson 160. 내 인생...
Lesson 161. 내 인생...
Lesson 162. 내 인생...
Lesson 163. 내 인생...
Lesson 164. 내 인생...
Lesson 165. 내 인생...
Lesson 166. 내 인생...
Lesson 167. 내 인생...
Lesson 168. 내 인생...
Lesson 169. 내 인생...
Lesson 170. 내 인생...
Lesson 171. 내 인생...
Lesson 172. 내 인생...
Lesson 173. 내 인생...
Lesson 174. 내 인생...
Lesson 175. 내 인생...
Lesson 176. 내 인생...
Lesson 177. 내 인생...
Lesson 178. 내 인생...
Lesson 179. 내 인생...
Lesson 180. 내 인생...
Lesson 181. 내 인생...
Lesson 182. 내 인생...
Lesson 183. 내 인생...
Lesson 184. 내 인생...
Lesson 185. 내 인생...
Lesson 186. 내 인생...
Lesson 187. 내 인생...
Lesson 188. 내 인생...
Lesson 189. 내 인생...
Lesson 190. 내 인생...
Lesson 191. 내 인생...
Lesson 192. 내 인생...
Lesson 193. 내 인생...
Lesson 194. 내 인생...
Lesson 195. 내 인생...
Lesson 196. 내 인생...
Lesson 197. 내 인생...
Lesson 198. 내 인생...
Lesson 199. 내 인생...
Lesson 200. 내 인생...
Lesson 201. 내 인생...
Lesson 202. 내 인생...
Lesson 203. 내 인생...
Lesson 204. 내 인생...
Lesson 205. 내 인생...
Lesson 206. 내 인생...
Lesson 207. 내 인생...
Lesson 208. 내 인생...
Lesson 209. 내 인생...
Lesson 210. 내 인생...
Lesson 211. 내 인생...
Lesson 212. 내 인생...
Lesson 213. 내 인생...
Lesson 214. 내 인생...
Lesson 215. 내 인생...
Lesson 216. 내 인생...
Lesson 217. 내 인생...
Lesson 218. 내 인생...
Lesson 219. 내 인생...
Lesson 220. 내 인생...
Lesson 221. 내 인생...
Lesson 222. 내 인생...
Lesson 223. 내 인생...
Lesson 224. 내 인생...
Lesson 225. 내 인생...
Lesson 226. 내 인생...
Lesson 227. 내 인생...
Lesson 228. 내 인생...
Lesson 229. 내 인생...
Lesson 230. 내 인생...
Lesson 231. 내 인생...
Lesson 232. 내 인생...
Lesson 233. 내 인생...
Lesson 234. 내 인생...
Lesson 235. 내 인생...
Lesson 236. 내 인생...
Lesson 237. 내 인생...
Lesson 238. 내 인생...
Lesson 239. 내 인생...
Lesson 240. 내 인생...
Lesson 241. 내 인생...
Lesson 242. 내 인생...
Lesson 243. 내 인생...
Lesson 244. 내 인생...
Lesson 245. 내 인생...
Lesson 246. 내 인생...
Lesson 247. 내 인생...
Lesson 248. 내 인생...
Lesson 249. 내 인생...
Lesson 250. 내 인생...
Lesson 251. 내 인생...
Lesson 252. 내 인생...
Lesson 253. 내 인생...
Lesson 254. 내 인생...
Lesson 255. 내 인생...
Lesson 256. 내 인생...
Lesson 257. 내 인생...
Lesson 258. 내 인생...
Lesson 259. 내 인생...
Lesson 260. 내 인생...
Lesson 261. 내 인생...
Lesson 262. 내 인생...
Lesson 263. 내 인생...
Lesson 264. 내 인생...
Lesson 265. 내 인생...
Lesson 266. 내 인생...
Lesson 267. 내 인생...
Lesson 268. 내 인생...
Lesson 269. 내 인생...
Lesson 270. 내 인생...
Lesson 271. 내 인생...
Lesson 272. 내 인생...
Lesson 273. 내 인생...
Lesson 274. 내 인생...
Lesson 275. 내 인생...
Lesson 276. 내 인생...
Lesson 277. 내 인생...
Lesson 278. 내 인생...
Lesson 279. 내 인생...
Lesson 280. 내 인생...
Lesson 281. 내 인생...
Lesson 282. 내 인생...
Lesson 283. 내 인생...
Lesson 284. 내 인생...
Lesson 285. 내 인생...
Lesson 286. 내 인생...
Lesson 287. 내 인생...
Lesson 288. 내 인생...
Lesson 289. 내 인생...
Lesson 290. 내 인생...
Lesson 291. 내 인생...
Lesson 292. 내 인생...
Lesson 293. 내 인생...
Lesson 294. 내 인생...
Lesson 295. 내 인생...
Lesson 296. 내 인생...
Lesson 297. 내 인생...
Lesson 298. 내 인생...
Lesson 299. 내 인생...
Lesson 300. 내 인생...
Lesson 301. 내 인생...
Lesson 302. 내 인생...
Lesson 303. 내 인생...
Lesson 304. 내 인생...
Lesson 305. 내 인생...
Lesson 306. 내 인생...
Lesson 307. 내 인생...
Lesson 308. 내 인생...
Lesson 309. 내 인생...
Lesson 310. 내 인생...
Lesson 311. 내 인생...
Lesson 312. 내 인생...
Lesson 313. 내 인생...
Lesson 314. 내 인생...
Lesson 315. 내 인생...
Lesson 316. 내 인생...
Lesson 317. 내 인생...
Lesson 318. 내 인생...
Lesson 319. 내 인생...
Lesson 320. 내 인생...
Lesson 321. 내 인생...
Lesson 322. 내 인생...
Lesson 323. 내 인생...
Lesson 324. 내 인생...
Lesson 325. 내 인생...
Lesson 326. 내 인생...
Lesson 327. 내 인생...
Lesson 328. 내 인생...
Lesson 329. 내 인생...
Lesson 330. 내 인생...
Lesson 331. 내 인생...
Lesson 332. 내 인생...
Lesson 333. 내 인생...
Lesson 334. 내 인생...
Lesson 335. 내 인생...
Lesson 336. 내 인생...
Lesson 337. 내 인생...
Lesson 338. 내 인생...
Lesson 339. 내 인생...
Lesson 340. 내 인생...
Lesson 341. 내 인생...
Lesson 342. 내 인생...
Lesson 343. 내 인생...
Lesson 344. 내 인생...
Lesson 345. 내 인생...
Lesson 346. 내 인생...
Lesson 347. 내 인생...
Lesson 348. 내 인생...
Lesson 349. 내 인생...
Lesson 350. 내 인생...
Lesson 351. 내 인생...
Lesson 352. 내 인생...
Lesson 353. 내 인생...
Lesson 354. 내 인생...
Lesson 355. 내 인생...
Lesson 356. 내 인생...
Lesson 357. 내 인생...
Lesson 358. 내 인생...
Lesson 359. 내 인생...
Lesson 360. 내 인생...
Lesson 361. 내 인생...
Lesson 362. 내 인생...
Lesson 363. 내 인생...
Lesson 364. 내 인생...
Lesson 365. 내 인생...
Lesson 366. 내 인생...
Lesson 367. 내 인생...
Lesson 368. 내 인생...
Lesson 369. 내 인생...
Lesson 370. 내 인생...
Lesson 371. 내 인생...
Lesson 372. 내 인생...
Lesson 373. 내 인생...
Lesson 374. 내 인생...
Lesson 375. 내 인생...
Lesson 376. 내 인생...
Lesson 377. 내 인생...
Lesson 378. 내 인생...
Lesson 379. 내 인생...
Lesson 380. 내 인생...
Lesson 381. 내 인생...
Lesson 382. 내 인생...
Lesson 383. 내 인생...
Lesson 384. 내 인생...
Lesson 385. 내 인생...
Lesson 386. 내 인생...
Lesson 387. 내 인생...
Lesson 388. 내 인생...
Lesson 389. 내 인생...
Lesson 390. 내 인생...
Lesson 391. 내 인생...
Lesson 392. 내 인생...
Lesson 393. 내 인생...
Lesson 394. 내 인생...
Lesson 395. 내 인생...
Lesson 396. 내 인생...
Lesson 397. 내 인생...
Lesson 398. 내 인생...
Lesson 399. 내 인생...
Lesson 400. 내 인생...
Lesson 401. 내 인생...
Lesson 402. 내 인생...
Lesson 403. 내 인생...
Lesson 404. 내 인생...
Lesson 405. 내 인생...
Lesson 406. 내 인생...
Lesson 407. 내 인생...
Lesson 408. 내 인생...
Lesson 409. 내 인생...
Lesson 410. 내 인생...
Lesson 411. 내 인생...
Lesson 412. 내 인생...
Lesson 413. 내 인생...
Lesson 414. 내 인생...
Lesson 415. 내 인생...
Lesson 416. 내 인생...
Lesson 417. 내 인생...
Lesson 418. 내 인생...
Lesson 419. 내 인생...
Lesson 420. 내 인생...
Lesson 421. 내 인생...
Lesson 422. 내 인생...
Lesson 423. 내 인생...
Lesson 424. 내 인생...
Lesson 425. 내 인생...
Lesson 426. 내 인생...
Lesson 427. 내 인생...
Lesson 428. 내 인생...
Lesson 429. 내 인생...
Lesson 430. 내 인생...
Lesson 431. 내 인생...
Lesson 432. 내 인생...
Lesson 433. 내 인생...
Lesson 434. 내 인생...
Lesson 435. 내 인생...
Lesson 436. 내 인생...
Lesson 437. 내 인생...
Lesson 438. 내 인생...
Lesson 439. 내 인생...
Lesson 440. 내 인생...
Lesson 441. 내 인생...
Lesson 442. 내 인생...
Lesson 443. 내 인생...
Lesson 444. 내 인생...
Lesson 445. 내 인생...
Lesson 446. 내 인생...
Lesson 447. 내 인생...
Lesson 448. 내 인생...
Lesson 449. 내 인생...
Lesson 450. 내 인생...
Lesson 451. 내 인생...
Lesson 452. 내 인생...
Lesson 453. 내 인생...
Lesson 454. 내 인생...
Lesson 455. 내 인생...
Lesson 456. 내 인생...
Lesson 457. 내 인생...
Lesson 458. 내 인생...
Lesson 459. 내 인생...
Lesson 460. 내 인생...
Lesson 461. 내 인생...
Lesson 462. 내 인생...
Lesson 463. 내 인생...
Lesson 464. 내 인생...
Lesson 465. 내 인생...
Lesson 466. 내 인생...
Lesson 467. 내 인생...
Lesson 468. 내 인생...
Lesson 469. 내 인생...
Lesson 470. 내 인생...
Lesson 471. 내 인생...
Lesson 472. 내 인생...
Lesson 473. 내 인생...
Lesson 474. 내 인생...
Lesson 475. 내 인생...
Lesson 476. 내 인생...
Lesson 477. 내 인생...
Lesson 478. 내 인생...
Lesson 479. 내 인생...
Lesson 480. 내 인생...
Lesson 481. 내 인생...
Lesson 482. 내 인생...
Lesson 483. 내 인생...
Lesson 484. 내 인생...
Lesson 485. 내 인생...
Lesson 486. 내 인생...
Lesson 487. 내 인생...
Lesson 488. 내 인생...
Lesson 489. 내 인생...
Lesson 490. 내 인생...
Lesson 491. 내 인생...
Lesson 492. 내 인생...
Lesson 493. 내 인생...
Lesson 494. 내 인생...
Lesson 495. 내 인생...
Lesson 496. 내 인생...
Lesson 497. 내 인생...
Lesson 498. 내 인생...
Lesson 499. 내 인생...
Lesson 500. 내 인생...
Lesson 501. 내 인생...
Lesson 502. 내 인생...
Lesson 503. 내 인생...
Lesson 504. 내 인생...
Lesson 505. 내 인생...
Lesson 506. 내 인생...
Lesson 507. 내 인생...
Lesson 508. 내 인생...
Lesson 509. 내 인생...
Lesson 510. 내 인생...
Lesson 511. 내 인생...
Lesson 512. 내 인생...
Lesson 513. 내 인생...
Lesson 514. 내 인생...
Lesson 515. 내 인생...
Lesson 516. 내 인생...
Lesson 517. 내 인생...
Lesson 518. 내 인생...
Lesson 519. 내 인생...
Lesson 520. 내 인생...
Lesson 521. 내 인생...
Lesson 522. 내 인생...
Lesson 523. 내 인생...
Lesson 524. 내 인생...
Lesson 525. 내 인생...
Lesson 526. 내 인생...
Lesson 527. 내 인생...
Lesson 528. 내 인생...
Lesson 529. 내 인생...
Lesson 530. 내 인생...
Lesson 531. 내 인생...
Lesson 532. 내 인생...
Lesson 533. 내 인생...
Lesson 534. 내 인생...
Lesson 535. 내 인생...
Lesson 536. 내 인생...
Lesson 537. 내 인생...
Lesson 538. 내 인생...
Lesson 539. 내 인생...
Lesson 540. 내 인생...
Lesson 541. 내 인생...
Lesson 542. 내 인생...
Lesson 543. 내 인생...
Lesson 544. 내 인생...
Lesson 545. 내 인생...
Lesson 546. 내 인생...
Lesson 547. 내 인생...
Lesson 548. 내 인생...
Lesson 549. 내 인생...
Lesson 550. 내 인생...
Lesson 551. 내 인생...
Lesson 552. 내 인생...
Lesson 553. 내 인생...
Lesson 554. 내 인생...
Lesson 555. 내 인생...
Lesson 556. 내 인생...
Lesson 557. 내 인생...
Lesson 558. 내 인생...
Lesson 559. 내 인생...
Lesson 560. 내 인생...
Lesson 561. 내 인생...
Lesson 562. 내 인생...
Lesson 563. 내 인생...
Lesson 564. 내 인생...
Lesson 565. 내 인생...
Lesson 566. 내 인생...
Lesson 567. 내 인생...
Lesson 568. 내 인생...
Lesson 569. 내 인생...
Lesson 570. 내 인생...
Lesson 571. 내 인생...
Lesson 572. 내 인생...
Lesson 573. 내 인생...
Lesson 574. 내 인생...
Lesson 575. 내 인생...
Lesson 576. 내 인생...
Lesson 577. 내 인생...
Lesson 578. 내 인생...
Lesson 579. 내 인생...
Lesson 580. 내 인생...
Lesson 581. 내 인생...
Lesson 582. 내 인생...
Lesson 583. 내 인생...
Lesson 584. 내 인생...
Lesson 585. 내 인생...
Lesson 586. 내 인생...
Lesson 587. 내 인생...
Lesson 588. 내 인생...
Lesson 589. 내 인생...
Lesson 590. 내 인생...
Lesson 591. 내 인생...
Lesson 592. 내 인생...
Lesson 593. 내 인생...
Lesson 594. 내 인생...
Lesson 595. 내 인생...
Lesson 596. 내 인생...
Lesson 597. 내 인생...
Lesson 598. 내 인생...
Lesson 599. 내 인생...
Lesson 600. 내 인생...
Lesson 601. 내 인생...
Lesson 602. 내 인생...
Lesson 603. 내 인생...
Lesson 604. 내 인생...
Lesson 605. 내 인생...
Lesson 606. 내 인생...
Lesson 607. 내 인생...
Lesson 608. 내 인생...
Lesson 609. 내 인생...
Lesson 610. 내 인생...
Lesson 611. 내 인생...
Lesson 612. 내 인생...
Lesson 613. 내 인생...
Lesson 614. 내 인생...
Lesson 615. 내 인생...
Lesson 616. 내 인생...
Lesson 617. 내 인생...
Lesson 618. 내 인생...
Lesson 619. 내 인생...
Lesson 620. 내 인생...
Lesson 621. 내 인생...
Lesson 622. 내 인생...
Lesson 623. 내 인생...
Lesson 624. 내 인생...
Lesson 625. 내 인생...
Lesson 626. 내 인생...
Lesson 627. 내 인생...
Lesson 628. 내 인생...
Lesson 629. 내 인생...
Lesson 630. 내 인생...
Lesson 631. 내 인생...
Lesson 632. 내 인생...
Lesson 633. 내 인생...
Lesson 634. 내 인생...
Lesson 635. 내 인생...
Lesson 636. 내 인생...
Lesson 637. 내 인생...
Lesson 638. 내 인생...
Lesson 639. 내 인생...
Lesson 640. 내 인생...
Lesson 641. 내 인생...
Lesson 642. 내 인생...
Lesson 643. 내 인생...
Lesson 644. 내 인생...
Lesson 645. 내 인생...
Lesson 646. 내 인생...
Lesson 647. 내 인생...
Lesson 648. 내 인생...
Lesson 649. 내 인생...
Lesson 650. 내 인생...
Lesson 651. 내 인생...
Lesson 652. 내 인생...
Lesson 653. 내 인생...
Lesson 654. 내 인생...
Lesson 655. 내 인생...
Lesson 656. 내 인생...
Lesson 657. 내 인생...
Lesson 658. 내 인생...
Lesson 659. 내 인생...
Lesson 660. 내 인생...
Lesson 661. 내 인생...
Lesson 662. 내 인생...
Lesson 663. 내 인생...
Lesson 664. 내 인생...
Lesson 665. 내 인생...
Lesson 666. 내 인생...
Lesson 667. 내 인생...
Lesson 668. 내 인생...
Lesson 669. 내 인생...
Lesson 670. 내 인생...
Lesson 671. 내 인생...
Lesson 672. 내 인생...
Lesson 673. 내 인생...
Lesson 674. 내 인생...
Lesson 675. 내 인생...
Lesson 676. 내 인생...
Lesson 677. 내 인생...
Lesson 678. 내 인생...
Lesson 679. 내 인생...
Lesson 680. 내 인생...
Lesson 681. 내 인생...
Lesson 682. 내 인생...
Lesson 683. 내 인생...
Lesson 684. 내 인생...
Lesson 685. 내 인생...
Lesson 686. 내 인생...
Lesson 687. 내 인생...
Lesson 688. 내 인생...
Lesson 689. 내 인생...
Lesson 690. 내 인생...
Lesson 691. 내 인생...
Lesson 692. 내 인생...
Lesson 693. 내 인생...
Lesson 694. 내 인생...
Lesson 695. 내 인생...
Lesson 696. 내 인생...
Lesson 697. 내 인생...
Lesson 698. 내 인생...
Lesson 699. 내 인생...
Lesson 700. 내 인생...
Lesson 701. 내 인생...
Lesson 702. 내 인생...
Lesson 703. 내 인생...
Lesson 704. 내 인생...
Lesson 705. 내 인생...
Lesson 706. 내 인생...
Lesson 707. 내 인생...
Lesson 708. 내 인생...
Lesson 709. 내 인생...
Lesson 710. 내 인생...
Lesson 711. 내 인생...
Lesson 712. 내 인생...
Lesson 713. 내 인생...
Lesson 714. 내 인생...
Lesson 715. 내 인생...
Lesson 716. 내 인생...
Lesson 717. 내 인생...
Lesson 718. 내 인생...
Lesson 719. 내 인생...
Lesson 720. 내 인생...
Lesson 721. 내 인생...
Lesson 722. 내 인생...
Lesson 723. 내 인생...
Lesson 724. 내 인생...
Lesson 725. 내 인생...
Lesson 726. 내 인생...
Lesson 727. 내 인생...
Lesson 728. 내 인생...
Lesson 729. 내 인생...
Lesson 730. 내 인생...
Lesson 731. 내 인생...
Lesson 732. 내 인생...
Lesson 733. 내 인생...
Lesson 734. 내 인생...
Lesson 735. 내 인생...
Lesson 736. 내 인생...
Lesson 737. 내 인생...
Lesson 738. 내 인생...
Lesson 739. 내 인생...
Lesson 740. 내 인생...
Lesson 741. 내 인생...
Lesson 742. 내 인생...
Lesson 743. 내 인생...
Lesson 744. 내 인생...
Lesson 745. 내 인생...
Lesson 746. 내 인생...
Lesson 747. 내 인생...
Lesson 748. 내 인생...
Lesson 749. 내 인생...
Lesson 750. 내 인생...
Lesson 751. 내 인생...
Lesson 752. 내 인생...
Lesson 753. 내 인생...
Lesson 754. 내 인생...
Lesson 755. 내 인생...
Lesson 756. 내 인생...
Lesson 757. 내 인생...
Lesson 758. 내 인생...
Lesson 759. 내 인생...
Lesson 760. 내 인생...
Lesson 761. 내 인생...
Lesson 762. 내 인생...
Lesson 763. 내 인생...
Lesson 764. 내 인생...
Lesson 765. 내 인생...
Lesson 766. 내 인생...
Lesson 767. 내 인생...
Lesson 768. 내 인생...
Lesson 769. 내 인생...<